

석원태 목사 죄증 관련 자료

경향교회
개 혁 집 사 회

경향교회 석원태목사님과 신선철장로님께

신재철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석목사님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을 우선 지면으로 올려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선한 분별력을 잃고 무조건 석목사님의 말씀만 듣고 그분을 도와 동생이자 목사를 말할 수 없이 괴롭혔던 신장로님도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원인을 제공했던 석원태목사님과 함께 장로님도 공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사적으로도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경향교회가 동자동에 있을 때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으며 가족들을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만형은 현재 경향교회 장로로, 경향교회에서 권사임직을 받은 어머니는 저희 초원교회로 이명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위시한 나머지 가족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또한 목사님의 권유를 받아 고려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님의 결혼주례로 안현숙 사모와 결혼까지 했으며 1990년도에는 경인노회에서 역시 목사님의 안수로 목사임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임직전후에 여러 가지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정리하여 기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한참 은혜를 받고 있을 무렵 목사님은 신림동에 경향교회 이전 건축을 계획하시면서 분명히 어느 달 제직회 시간에 "돈있는 집사들은 교회에 돈을 가져와라 은행이자는 절대로 쳐주겠다. 석목사가 살아있는 한 피해는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무렵 안현숙 사모와 결혼을 했고 결혼 후 장인이 비록 불신자였지만 현금을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장인에게 교회의 건축사정을 설명하고 당시 석목사님을 도와 여러 가지 충성스러운 일을 감당했던 정경효장로를 통하여 처가의 돈을 빌려주기 시작

했습니다. 물론 정점효 장로가 차용증을 써 주었고 그 차용증 끝에는 경향교회 당회장 석원태목사의 이름이 기명되고 목사님의 도장도 찍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너간 돈이 1억 4천만원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큰 돈이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장인은 저를 믿었고 물론 큰 교회를 목양하시는 목사님을 믿었습니다. 솔직히 당시의 평균사채이자인 월 2%로 빌려주기 시작했으나 제가 처가에 호소하여 점점 1.8%, 1.6%로 이자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장인은 은행이자로 금리를 낮추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불행히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사정을 목사님이 기억하시겠지만 저희 장인은 예수를 믿고 원자력병원에서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이 내려오신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분은 목사님께 세상을 떠나기 3일 전에 세례를 받았고 교회의 축복 속에 장례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되어 경향교회에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저도 당황할 수 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름하여 정점효장로 사건입니다. 이때 목사님은 "나는 모르는 돈이다. 정점효장로가 교회를 이용해서 사기극을 벌인 일이다"라고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은 저를 당회실에 불러 "너는 처가의 편에 서지 말고 내편에 서라. 그러면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는 기가 막힌말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최창식장로를 보내 1억원을 더 빌려주면 추후에 이미 빌려준 1억 4천을 더해 원금과 은행이자를 쳐서 다 갚아주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저에게 말하기를 "3백만원, 5백만원 등 적게 걸린 성도들의 돈을 갚아 주어야 교회의 시험을 줄일 수 있다며 최장로와 그렇게 상의를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장인은 이미 1억 4천만원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목사와 교회가 추가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때 최장로는 저에게 "없었던 이야기로 합시다"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미 빌려준 1억 4천만원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의 신앙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목사님과 장로의 처신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장로가 교회의 공적 직분을 가지고 벌인 일 그것도 석목사님의 도장까지 찍힌 일을 모르는 일이라고 일관하십니까? 단순히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 그런 처신을 하셨다면 누가 보아도 궁색

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로 고려신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마지막 남은 한 학기를 다니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양심적으로 교회편에 설 수도 없고 처갓집 편에 설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만삭이었던 제 아내는 고려신학교 2학년 2학기를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제 아내를 신림동 신학교 운동장에서 만나 “당신 신랑은 믿음이 없는 놈이야. 형편없는 놈이야. 돈놀이하는 사기꾼이야”라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여 교회를 사랑했던 저의 아내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2년 동안 형님의 도움을 얻어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이어 나갔고 영적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경효장로는 돈을 갚기는커녕 엉뚱한 논리를 가지고 처가를 고소했고 저는 증인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가는 제 아내가 저와 살고 있는 동안 어찌할 수 없어 저를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교회는 끝까지 저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당시 마지막 증인으로 어려운 중에도 사실을 밝히겠다는 이원조목사(당시 전도사)가 증인으로 나가자 소는 취하되었습니다.

내가 그 당시 신선철장로님을 광명시 철산동에 32평 아파트를 사도록 소개했는데 3천만원 정도에 샀는데 4년 뒤에 제 기억에 1억 3천 정도를 받고 팔았으니 당시 장인이 경향교회에 빌려준 1억 4천만원은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뒤에 목사님이 이○○사건이 밝혀지자 자진하여 처가의 돈을 완제하여 주었습니다. 목사님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저는 꼼짝없이 믿음으로 소개했던 그 돈 때문에 목사님과 처가로부터 곤란한 입장에 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의 생각으로는 목사님의 죄가 저에게 밝혀진 것이 하나님께서 억울한 입장을 풀어주기 위함이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호텔 생활을 하던 중에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이경희목사를 만나 다시 하나님의 일에 정진하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총회신학교로 적을 옮겨 졸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경희목사가 시무하던 교회의

전도사로 들어갔는데 당시 선교중앙교회의 담임이던 이경희목사가 우리와 신학과 목회의 방법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나도 개척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용기를 가지고 교회개척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석목사님과 안좋은 관계였지만 큰 형은 그래도 개척 인사를 석목사님께 하라고 해서 제 아내와 어린아들을 안고 1988년 11월 어느 주일에 목사님을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은 1부 예배를 마치고 우종선장로님과 함께 당회실로 들어왔는데 저와 아내가 인사를 하고 개척보고를 드렸더니 인사도 물론 안받았지만 “당신 같은 사람도 개척을 합니까?”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축복의 기도라도 받고 싶은 기대 속에 갔지만 다시한번 석목사님의 인격을 접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인천에 개척하는지라 조석연목사님께 인사를 갔더니 시큰둥한 반응이셨습니다. 석목사님이 그만큼 저에 대해서 욕을 했던 영향으로 저 자신은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려파에 소속되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제 아내를 길러주었던 조원구목사만 초청하여 초라한 개척감사예배를 드리고 초원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 이원조목사님이 여러 가지 경우에 도움을 주면서 초원교회를 출입했습니다. 물론 그 분도 목사님에 대해 인격적인 면에서 엄청난 실망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원조목사님이 당시 경향교회 청년이자 고려신학교 성서학과 학생이었던 이경애선생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고민하던 중 저와 깊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결론 내리기를 이경애선생과 이○○선생이 석목사님을 과하게 사모하던 중 나온 소리려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이○○선생이 목사님과 여러해에 걸쳐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전도사 등을 통해 전국에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석목사님은 최사모님을 미국에 보내셨고 이 소문을 막지 못해 안절부절이었습니다. 저는 이러다가 교단이 와해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우선 이 일이 사실이라면 목사님을 회개시켜야 되겠고 사실이 아니라면 막아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원조목사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석목사님에 대한 애증이

그때까지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선생을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우리교회에 전도사로 있었던 이○숙전도사가 자신과 석목사님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마도 석목사님과 이○○와의 성적관계는 사실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했고 또 이○숙전도사와 사돈관계이자 친구관계인 이○○선생을 만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1990년 3월 4일 밤늦게 저는 이원조목사와 함께 안양에 있는 이○○선생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정을 토로하면서 석목사님의 죄는 밋지만 교단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습니다. 한참의 설득 속에 이○○선생은 심도있게 사실 관계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이원조목사와 저는 석목사가 악질이기 때문에 부인할지 모르니까 녹음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선생의 오빠인 이○집사가 동의하여 녹음기와 테이프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얼마 전에 최창식장로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써준 문서는 사실이 아니며 석목사님이 이원조전도사님과 신재철전도사의 회개촉구를 받지 아니하면 자신은 석목사님과의 관계를 외부에 공개하여 공개적인 회개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문서를 기록해 주고 지장까지 찍어 주었습니다. 이때 가족 대표로 당시 박민정목사가 시무하던 동문교회 이○집사가 사실확인과 함께 지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아마 최창식장로는 석목사님의 죄가 사실인 것을 알면서도 교회를 생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목사님은 이원조목사와 제가 이○○선생을 만나기 직전 눈치를 채셨는지 당시 경향교회 전도인이었던 강계란, 조순이씨를 보내 “이원조, 신재철 두 사람은 경계해야 될 사람이다. 교회에서 잘린 사람이다. 사실을 그들에게 고백하면 교단은 와해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등 회유, 협박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목사님이 아직까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연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원조목사는 직접 찾아갈 것도 없이 석목사님이 와서 무릎 꿇고 빌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으나 점점 소문이 깊어지므로 초조해진 나는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목사님은 저에게 “김길곤교수가 너무 실

력이 없어 잘라야 되겠다”는 말을 자주했습니다. 이말은 얼마 전 신선철장로와 함께 목사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 말을 드렸더니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김교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에게 전혀 인기가 없습니다. 실력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석목사님은 다음 주에 미국으로 가신다면서 다녀오면 강구원목사와 김길곤교수를 대동하여 저와 식사자리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신선철장로는 분명히 합석하고 들었습니다. 이 기회가 오면 저는 두 분에게 석목사님을 바로 모시지 못한 일을 낱알이 지적하여 개혁에 동참하지 않으면 석목사님과 교단에 누가 된다고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위기만 넘어가면 그만이었습니다. 후에 이런 일들을 거론하면 “기억이 없다”로 일관했고 또 위기에 몰리면 “용서해”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당시 김길곤교수와 사이가 괜찮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사람을 이용하고 자른다고 생각하여 김길곤교수를 개입시키기로 마음먹고 이원조목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길곤교수에게 사실을 통보하여 1989년 어느 날 밤 목사님의 여의도 삼익 아파트사택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우리 세 사람을 처음 보았을 때 목사님은 김교수에게 “교수님 정말 미안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라고 했고 우리에게는 감히 무슨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거의 신목사 자신이 말을 많이했고 이원조목사는 몇 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때의 주된 내용은 우리 두 사람이 목사님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목사님이 진정으로 회개하였다고 하여서 앞으로 그렇다면 목사님이 고려신학교 교장으로 집무하면서 직원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1년 내에 학년이 바뀔 때 신학교 교장을 물러나기로 했고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경향교회 당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양해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목사님이 교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고려신학교가 문산에 한참 신축 중에 있었으며 신림동 건축문제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단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관대하게 처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황당하게도 지금까지 고려신학교 교장의 직함을 유지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된다는 독선이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내가 죽으

면 고려신학교 앞에다 물어라 김태운이는 절대 안된다”는 공적인 발언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자의든 타의든 목사님과 자주 통화하고 만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주로 인천 올림푸스호텔이나 고려신학교 교장실 등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저를 만나 주었던 것은 아마도 이미 알고 있는 신목사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는 것과 또 이미 교단 내외에 나 있는 소문을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석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단을 위해서 이 일을 목회에 손해를 보면서 까지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당시 목사님이 “조석연목사가 큰 일이야. 지금 그 친구가 시큰둥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걱정 하길래 제가 즉석에서 “지금 당장 조목사님께 전화하세요. 설마 목사님께 엉뚱한 소리야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은 무릎을 치면서 저를 칭찬했고 제가 보는 앞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당시 조목사님의 대답은 “목사님 가만히 계십시오. 저희들이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며 대단히 흡족해 했습니다.

저는 당시 소문을 듣고 존경스러웠던 스승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러워 하며 고통을 겪었던 김영제목사를 중심으로 한 한 그룹을 통한 소문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석목사님과 사전에 각본을 짜고 김영제목사를 데리고 여의도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때 목사님은 저에게 “돈 관계 때문에 나를 미워하느냐? 나는 모르는 일이다”는 등으로 저를 먼저 혼냈고(물론 저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사항) 후에 김영제목사에게 “학우 회장까지 지낸 놈이 그런 소문을 듣고 부화뇌동 하느냐. 너 그 정도밖에 안돼. 내가 반고소 목사이기 때문에 이 ○○이와 이○○를 고소하지 못하는 것 뿐이야” 등으로 설득했습니다(이는 제가 목사님께 정보를 준대로 처신한 것임). 그후 김목사는 자주 만나는 친구들에게 석목사님을 만나보니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고 교단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 말을 하면서 내 대신 나팔을 불어 주었습니다. 그후 김영제목사가 선교사로 나가면서 자주 모였던 그룹들이 해체되다시피 했고, 소문은 잠잠해

졌습니다.

석목사님은 영종도 운서교회 김상규목사가 증거는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당시 유치원 관계로(당시 이○○숙전도사가 김상규목사의 처가 땅에 유치원을 짓고 경영 중) 가깝게 지내던 이○○전도사로부터 되어진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신목사의 통보를 듣고 자청하여 저를 앞세워 운서교회까지 친히 방문하여 식사기도를 하면서 “이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앞으로 주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채찍으로 삼게 하소서”라는 등의 기도로 김상규목사 부부 앞에서 죄를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또 운서교회 앞에 다리공사를 그해 경향교회 대학부하기 봉사를 하도록 하여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후에 언급하겠지만 2000년 9월 8일 인천노회 임시노회가 끝나고 통화를 하였을 때 김상규목사는 “교단은 개혁되어야 한다. 오늘 노회에서 파일 이야기가 오갔는데 처음에는 안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으나 석목사님이 개혁을 거부하면 연대해서 쓰는 것이 합당하겠다”고 조언까지 해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2000년 9월 10일 밤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때문에 사실 전부를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이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지 못할 때 시간을 가지고 보다 구체적인 기록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1990년 이원조전도사가 미국에서 안수를 받기 위하여 잠시 내한했을 때 일입니다. 당시 교육부장인 강구원목사는 석기신목사 등은 선교사 이름을 붙여 주문진 임페리얼호텔의 특실을 주었지만 이원조전도사는 분명 선교사인데 부부가 왔는데 방을 주지 않아 제가 항변했으나 강구원목사는 변함없이 특유의 기질을 가지고 나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후 사실을 알고 석목사님께서 중재하였지만 저는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이원조전도사의 목사안수식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이목사님도 목사안수를 유보하려 했으나 배○○사모와 저의 권유로 간신히 안수는 받고 우리집에 왔습니다. 교역자 수련대회가 마쳐지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알았던 목사님은 김길곤교수를 대동하여 당시 인천 신현동 우리 집에 밤늦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전화를 받고 자리를 피했고 두분 목사님은 한 시간 이상을 기다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석목사님은 진실성이 없는 분으로 확신했고 수없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처신을 했습니다. 뒤늦게 새벽 1시에 귀가했는데 두 분은 어디엔가 계셨다가 우리 집을 급습하여 어쩔 수 없이 석목사님과 김교수 그리고 이원조목사와 저 또한 제 아내가 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원조목사는 석목사님은 수도 없이 말을 바꾸는 사람이므로 녹음을 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목사님의 체면을 생각해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있겠는가 했지만 이목사는 완강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저보다도 석목사님에 대해서 더 깊은 체험과 연구가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하여 목사님은 체념한 듯(결코 훗날을 위해서 증거를 남기고 싶지 않았겠지만) “천번, 만번 녹음해도 좋습니다”라고 시작했고 1시간 20여분 동안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녹음의 내용은 주로 석목사님이 말씀했고 그 다음에 저였으며 김길곤교수와 이원조목사의 대화도 어느 정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석목사님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우리가 다 살았느냐 지금부터 자신을 지켜봐 달라”고 했고 한참의 논쟁중에 우리는 목사님께 다시한번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 중 이원조목사는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출판 중에 자기가 더 낮은 가격으로 견적을 받았는데 김교수가 훨씬 더 비싼 출판사에 계약을 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그리고 얼마 먹었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김길곤교수는 극구 부인했지만 저는 이원조목사의 말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저는 김교수와도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그의 생활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시 서울에서 400만원 전세의 지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김교수는 저의 소개로 인천으로 이사왔으며 저의 장인이 2백만원을 빌려준 일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생활 중에도 주를 위해 수고한다고 생각했었으나 그 당시 우진출판사(?)의 사장이 프린스를 타고 다녔는데 김교수가 부르면 사장이 태워주었고 김길곤교수가 그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김교수와 전가족들이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의료보험이 되던 시절이 아니었기에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김교수가 인간관계가 좋아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더욱 존경했었지만 이원조목사의 말을 들으

니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입니다. 그때서야 저는 석목사님의 불행한 일을 김교수에게 알려준 일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교단의 분위기를 그분을 통해서 석목사님께 전달했습니다. 예컨대 석목사님이 손자 이야기를 설교시간에 너무 하신다. 여전도회 수련회 강사를 혼자서만 독식하신다 등 교단목사 저변층에 깔린 불만들입니다. 이런 것을 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주재님게도 교단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김교수를 통해서나 석목사님에게 직접적으로 약점을 잡고 돈을 요구했거나 교단적인 어떤 위치를 요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와 이원조목사는 목사님의 약점을 알게 된 후부터 너무나 독선적으로 교단을 이끌어 가는 목사님을 위한 보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 이목사와 저 사이에 피차 깨지지 않기 위하여 수도 없는 편지로 왕래했고 전화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도 목사님은 공개석상에서 의도적으로 신목사가 가정구원에 성공을 했느니, 우리교단에 개혁주의 설교하는 사람이 세명 있는데 정성섭목사, 강구원목사, 신재철목사라느니, 신목사는 내 영의 아들이라느니, 초원교회에서 설교를 초청하면 감히 설교할 생각마라. 신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 하기 때문에 망신당한다느니 등의 말을 남발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아무리 석목사님이 부인해도 들었던 선후배 동역자들이 많기 때문에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식 일지라도 목사님이 저를 칭찬할 때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석목사님을 오늘까지 버틸 수 있게 해 준 인간적 힘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목사님은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과 자식들의 안주에만 몰두했습니다. 석목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교단을 사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등 교단행사에 열심히 하면 열심히대로 목사님은 걱정이 많았고, 또 안 나타나면 저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안 나타나는가? 김길곤교수를 통해 자주 통보와 설득을 받은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석목사님이 고통을 받으니까 안 나타날 때는 좀 더 열심히 나타나서 목사님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

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교단 목사들은 석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이 어두워진 목사님은 어느 순간인가 손자 얘기가 설교의 주를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교단에서 가깝게 지냈던 중진목사들에게 걱정을 했더니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며 체념적인 말들을 했습니다.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지금 교단의 핵심적인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김교수를 통해 목사님께 손자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목사님이 “강구원목사를 도와 교육부 서기업무를 잘 감당해라. 1, 2년 후에는 네가 교육부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 저는 즉석에서 거절을 했습니다(어느 중진목사는 강구원목사야말로 중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고, 투표를 하면 세표에서 여섯표가 고작인 것을 늘 보아왔으며 그분과 만나고 대화를 하면 내 자신이 은혜가 삭감되었고 많은 고려신학교 대학부 출신의 선후배들은 강구원목사가 후배들을 멸시한다고 현재도 지탄하고 있음)

이때부터 목사님은 저를 다루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목사님은 저의 만형인 신장로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형은 석목사님의 사주를 받고 정신을 잃고 과도를 들고 저를 죽인다고 쫓아왔습니다. 신목사를 죽이겠다며 칼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본 석원태목사님의 생질이자 신목사의 형수가 되는 경향교회 김순덕집사님이 우리 집으로 급히 전화를 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어머니에게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머니의 피하라는 연락을 받고 내가 왜 피하느냐고 했지만 울면서 호소한 어머니의 말을 듣고 피하여 화를 면한 적도 있습니다. 형제 이야기는 “왜 우리 목사님을 괴롭히느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신학교도 건축했고 교회도 잘 되지 않느냐?” 하는 식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형이나 기타 목사님의 주변 인물들을 세뇌시켜왔습니다. 이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형은 자주 자주 콜라병을 깨서 죽인다는 등 석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좋았던 형제간의 우애관계가 파괴되고 마침내 어머니는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신장로는 나의 형이지만 석목사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인격을 가졌고 가정의 건설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범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신장로님은 석원태목사님과 같

은 지도자를 만난 것이 큰 불행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석목사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정파괴범입니다. 지난 번에 신장으로와 함께 목사님을 뵈었을 때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은 천번 만번 회개했다”고 울먹였습니다. 또 한번 위기를 그런식으로 넘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한 분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자기 가족들에게는 철두철미하게 약했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가족 이기주의가 대단히 강한 분입니다. 이원조목사의 이야기 대로라면 이원조목사와 배○○사모의 부부관계도 파괴를 시켰었고 저에게 조석연목사님에 대한 수도 없는 욕들을 하면서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다는 속어까지 구사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얼마전에도 형님 앞에서 석목사님에게 조석연목사님의 아들 성일강도사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신목사가 모르는 엄청난 일이 있다고 모면했습니다. 그날 밤 목사님은 새벽 1시에 전화를 걸어 조성일강도사의 생활을 설명하면서 목사가 될 인격과 성품이 안 되는 아이를 목사시켜 달라고 하는 조석연이가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전화 통화시간은 40분 정도가 걸렸고 저는 거의 듣기만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언제나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해왔습니다. 석목사님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있는 저였기에 속아 넘어가는 다른 사람과는 달리 올바른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노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큰 형이 저를 위협하고 설득해도 저는 교단이 바로되어야 한다는 바른 교단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석목사님은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1999년 6월에 안산 생수교회에서 부흥사경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길용목사님이 해병대출신인 것을 칭송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도 자신은 물론 자녀까지도 병역실명제를 해야 된다는 예화를 소신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석목사님의 아들이나 석목사님의 이름을 기타 어느 목사의 이름도 거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천노회는 이것을 문제삼아 소위 교단의 2인자라고 하는 조석연목사님이 그렇게 치리불가를 주장했는데도 인천 노회 임원들은 저를 치리하겠다는 강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선두교

회의 9명 피택장로의 면접은 해주면서도 3시간 반 동안이나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우리교회의 2명의 피택장로의 면접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변은 신목사가 당회장권 정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장로임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석연목사와 그 외 여러 목사들이 초원교회 당회장이 2개의 개척교회의 당회장직을 수행하는 문제 등을 이유로 막았는데도 일이 강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곧 석목사님의 지시나 입김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반증입니다.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음력 4월 초파일에 큰 형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동안의 행적으로 보아 도무지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찾아 왔기 때문에 만났던 것입니다. 그때 형과 나누었던 대화는 형과 저 사이의 비밀로 간직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형에게 인천노회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실토했습니다. 말하자면 저를 치리하겠다는 사건입니다. 이때 형은 앞으로 30년이나 남은 죄없는 동생 목사의 생명에 치명타를 가하려고 했던 목사님에 대하여 나름대로 섭섭함을 가진 것 같고, 제 문제가 석목사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풀릴 수 없다고 말했으며 저와의 대화를 통해 지금까지 가졌던 오해도 상당히 풀리는 시간이었습니다.(그 오해는 주로 석목사님이 주입한 것이지만)

아마 제 생각에 형은 노회에서 있었던 제 문제를 목사님께 강경하게 항변한 것 같고 목사님은 형만 만나고 저를 만나려고 안했지만 저의 완강한 요청에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형님에게 위로를 주었던 장로님들이 더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목사님이 개인별로 만나 거짓도 사실로 위장하는 아픈 현실이지만) 이 자리에서 석목사님은 저에게 노회임원들의 실수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시작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비록 경고가 나왔다하더라도 그것은 총대권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대를 회복해 주고, 저의 요청에 의해 총회선교부에 넣어주며(저는 목사님 때문에 이 교단에서 설 땅이 없어 선교부에 들어가면 모든 오해를 풀고 목회에 정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수있다고 생각) 노회임원들을 보내 사과를 하도록 할테니 신목사가 식사초대를 하라고 거듭 저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노회임

원들이 석목사님께 지금까지 신목사가 완강했는데 만나주겠느냐라고 걱정했나
봅니다). 이 문제는 조석연목사님이 개입되어 은혜롭게 넘어간 듯했습니다. 그
러나 총대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이문주서기가 표가 모자라서 부
총대 2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삼척동자도 웃습니다. 처음에 노회가 끝난 후 총대에 이름이 빠져 있길래 동
료목사를 시켜 확인했더니 인천노회 서기인 이문주목사의 답변이 “신목사는 징
계를 받았기 때문에 임원회에서 총대를 제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석목사님
을 만난 후 저를 만났을 때도 표가 모자란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노회
임원이 이름을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전혀 엉뚱한 일을 많이
하는 임원들이기 때문에 더욱이 인천노회 임원은 39회 동기들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저를 찍어 주었다는 목사의 표 숫자가 원총대가되고도
한참 남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유치하기 때문
입니다. 석목사님은 신선철장로가 포함된 10명의 장로총대도 바꾸면서 조석연
목사님께는 엉뚱한 궤변적 해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런 고통의 세월이 지속되던 중에 조석연목사를 위시한 몇몇 목사들이 모여
교단의 앞날을 걱정하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인천의 모 목사가 100명이 조
석연목사쪽에 도장을 찍었다는 거짓말을 하여 러시아에서 돌아오는 석목사님
이 총회장(양문화), 부총회장(이종래) 합석하에 경향교회 당회장실에서 조석연
목사님을 만나 석목사님이 다 수용하겠다는 말을 했을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일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석목사님은 하루만에 조사를 해보니
도장 찍은 사람이 없음을 알고 약속을 바꾸는 죄를 범했습니다(개혁을 하는 일
에 도장이 100개 찍히면 수용하고 아니면 수용 안 하십니까?). 이에 실망한 여
러 목사들이 우리교회와 가까운 송도호텔에서 모여 대책을 숙의하던 중 가까운
곳에 있는 저를 이길봉목사님이 불러 참석하게 되었고 평상시 제가 생각하던
의견과 상통하므로 개혁에 관한 말들을 종합정리하여 타자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정안이 석목사님께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후 ‘석목사님 측에서는
교단 연석회의를 고려신학교에서 갖도록 했습니다. 이때 조목사님이 발언했고
석목사님이 수용한다고 공언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잘 되리라고 믿었습

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목사님은 엉뚱한 생각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지만 저는 목사님의 약점을 이길봉목사님이나 조석연목사님 등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혜가 있는 이길봉목사님은 신재철목사가 석목사님께 저항적인데도 유독히 당하지 않는 배후에 형인 신선철장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김길곤교수를 만난 이후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어느날 김교수가 말하기를 “신목사가 무슨 뻥이 있길래 석목사님에게 버릇없이 굴어도 살아남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해병대 정보사 출신인 이목사님이 감을 잡고 “당신이 더 잘안다면서”라고 되치니까 김교수는 제가 발설했다고 판단했겠지요. 물론 이런 과정은 제가 가깝게 지내는 이목사님에게 석목사님의 여자관계를 발설했는가를 확인하려던 머리 좋은 김교수의 착안이었는지 모릅니다.

조석연목사님과 약속을 하루아침에 깨버린 목사님에 대해 분노했던 이길봉목사님이 아마도 개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파일 이야기를 동료목사님들에게 비추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조용선목사님이 저에게 파일을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CAS MIT 개업예배일 제 옆에 친구목사가 동석했는데 목사님은 급한 전화를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신목사 하나님이 천당에 안 데려가서 걱정이야. 이 죄인을 용서해라. 조용선목사에게 파일줬나? 아니면 복사하는 장면이라도 본 일이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했더니 “용서해 줘 용서해 줘” 하고 울면서 다음 주에 식사 한번 하자고 했습니다. 나는 식사기회가 주어지면 개혁을 수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분 뒤에 말을 바꾸는 목사님에게는 위기가 넘어가니까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혀 개혁이 수용되지 않고 부친의 어느 목사님을 통해 개혁(목사님 편에서는 반란이나 쿠데타로 칭하지만)에 가담한 모든 목사를 석목사님이 징계하여 자를 방침이라는 소식을 듣고 내 마음에 분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조원근목사를 위시한 평상시 가깝게 지내던 목사들에게 하나, 둘 석목사님의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예외없이 흥분하면서 회

개 의 기 회 니 뭐 니 필요 없 이 들 통 이 났 을 때 석 목 사 님 이 스 스 로 물 러 나 는 것 이 당 연 하 지 않 느 냐 는 논 리 였 습 니 다. 이 런 목 사 들 때 문 에 우 리 교 단 은 소 망 이 있 다 고 생 각 하 였 습 니 다. 저 는 이 때 지 혜 를 얻 기 를 뜻 있 는 목 사 들 에 게 사 실 을 통 보 하 고 테 이 프 를 들 려 주 면 얼 마 든 지 연 대 할 수 있 다 고 생 각 했 습 니 다. 그 럼 에 도 석 목 사 님 은 조 목 사 님 이 올 린 개 혁 에 걸 으 로 는 응 하 는 척 하 면 서 도 내 용 적 으 로 는 영 똥 한 일 을 계 획 하 고 있 었 습 니 다. 이 사 실 을 알 고 제 가 고 려 신 학 교 2000년 2학 기 개 강 예 배 를 드 린 날 밤 석 목 사 님 에 게 직 접 적 으 로 전 화 를 걸 었 던 일 이 있 습 니 다. 후 에 들 은 이 야 기 지 만 제 아 내 는 김 길 곤 교 수 와 그 날 전 화 통 화 를 1시 간 이 상 했 답 니 다. 이 때 김 교 수 는 “우 리 끼 리 얘 기 지 만 석 목 사 님 이 신 목 사 님 에 게 약 점 이 잡 혀 있 는 데 무 슨 뒤 통 수 를 치 겠 느 냐. 신 목 사 에 게 는 꿈 짝 못 한 다. 개 혁 은 신 목 사 가 합 세 안 해 도 자 동 적 으 로 되 게 되 어 있 다. 그 러 니 조 용 히 교 단 을 나 가 2-3년 만 있 으 면 석 목 사 님 이 아 니 라 도 내 가 얼 마 든 지 도 와 주 수 있 다. 파 일 을 조 석 연 목 사 등 에 게 주 면 신 목 사 는 그 결 로 별 볼 일 없 어 진 다. 그 러 니 주 지 말 라” 고 했 답 니 다. 이 런 게 영 향 력 이 고 착 한 마 음 (?) 을 가 진 김 교 수 님 께 정 말 감 사 를 드 릴 뿐 입 니 다. 김 교 수 와 통 화 한 후 석 목 사 님 자 신 도 제 아 내 에 게 전 화 를 걸 었 다 지 요. 한 참 동 안 천 사 같 은 말 씀 을 하 셴 다 가 제 아 내 가 “신 목 사 가 말 하 기 를 망 신 당 하 지 말 고 물 러 나 는 것 이 좋 겠 다” 라 고 전 하 자 재 수 없 다 는 듯 이 인 사 말 도 없 이 일 방 적 으 로 전 화 를 끊 으 셴 다 지 요. 이 것 이 위 기 만 넘 기 려 하 는 석 목 사 님 의 본 질 적 모 습 입 니 다. 목 사 님 은 항 상 자 신 의 잘 못 된 모 습 을 은 폐 하 려 고 거 짓 을 동 원 했 습 니 다.

조 석 연 목 사 님 은 석 목 사 님 의 여 자 관 계 에 대 한 파 일 도 없 는 데, 목 사 님 은 그 날 밤 김 길 곤 교 수 를 보 내 서 계 속 적 으 로 정 치 를 하 셴 습 니 다. 그 날 밤 조 석 연 목 사 님 은 파 일 에 대 한 확 신 을 가 졌 고 석 목 사 님 이 이 일 때 문 에 엄 청 난 고 심 을 하 고 있 다 는 사 실 을 알 게 되 셴 습 니 다. 한 심 하 기 그 지 없 다 고 생 각 했 습 니 다. 개 혁 의 대 상 자 인 김 교 수 를 보 내 정 치 하 는 모 습 이 답 답 하 고 측 은 하 기 까 지 했 습 니 다.

그 러 던 중 갑 자 기 인 천 노 회 임 시 노 회 가 소 집 되 었 고 인 천 노 회 는 조 석 연 목 사 님 이 올 린 개 혁 안 의 내 용 은 아 랑 곳 하 지 않 고 그 속 에 쓰 여 진 단 어 인 행 정 보 류 니, 연 대 성 명 이 니 하 는 문 구 만 가 지 고 문 제 를 삼 았 습 니 다. 저 들 임 원 들 은 조 석 연 목

사님이 2인자 어른이라고 하면서도(33회) 아들 같은 46회, 50회 목사들을 시켜 조목사님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에 아연 실색했습니다. 어떤 목사는 조석연목사와 신목사에게 X-파일이 있느냐 없느냐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만약에 조석연목사가 여자관계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덮어주지 않고 스승을 등치면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또한 조석연목사님에게 금년 총회시 총회장에 입후보하지 않겠다고 공개선언을 하면 개혁안을 올린 것을 진실로 받아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앞에 나와서 말입니다.

석목사님이 여자관계가 있다 손치더라도 스승인데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는데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소위 석목사님편에서 일하는 임원들과 젊은 목사들 때문에 석목사님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확하게 8명의 목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석연목사님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이 노회는 소망이 없다. 또 다른 내용은 석목사님이 정말 그런 죄를 범했다면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들은 과거에 들었던 소문이 사실이구나 라는 확신을 어리석은 자들 때문에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어느 한 목사는 파일을 써서라도 석목사를 물리쳐야 교단이 산다는 말도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이 글을 받고 원만한 처신을 하지 못할 때 이런 목사들과 만나 구체적인 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회참석 중 목이 말라 잠시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바깥에서 T.V모니터를 통해 노회 광경을 지켜보던 어느 강도사가 신목사에게 “이 개새끼 파일 가지고 스승을 괴롭혀? 꽤 죽여 버린다”라며 주먹이 날라왔습니다. 그 자리에 산곡교회의 송기홍장로가 있었기 때문에 화는 면했지만 맞지 못한 것이 한입니다. 교단 내에 뉴스거리를 만들어야 재미있는 게임이 계속될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나중에 노회가 끝날 무렵 이 문제를 문제 삼았지만 송기홍장로가 “존경하는 석원태 목사님의 X-파일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바람에 일어난 것이니 참작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파일 문제를 먼저 꺼냈습니까? 이 문제는 전혀 본인과 관계가 없었던 일입니다. 석목사님의 여자관계에 대한 사실을 소위

목사님을 위한다고하는 임원들과 목사들이 꺼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 인천노회원의 증인입니다. 이 일 때문에 목사님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의문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언급한 것처럼 신목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겨서 감사했습니다. 송기홍장로의 변명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석목사님을 닮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잡아 떼었을텐데 노회원도 아닌 강도사가 이미 안수받은지 10년이 넘은 목사를 폭행하려고 했던 것도 별로 문제 삼지 않으니 내가 석목사님을 욕하고 때려도 인천노회는 주의를 주는 정도로 끝나겠다고 생각하니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조석연목사님은 금번 인천노회 임시노회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비록 노회가 없었던 일로 하자고 결정했지만 제가 볼 때 조석연목사님에게 저 정도로 달라들 수 있다고 하면(천환목사는 신재철목사를 하수인으로 써서 그 파일을 가지고 조석연목사 등이 석목사의 목을 죄인 쿠데타로 인정하고 조목사를 징계함으로 끝내야 한다라고 말함) 과연 이것이 석목사님의 지시나 교감이 없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삼척동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석목사님 자신도 조석연목사님이 교단의 2인자라는 말씀을 자주 했습니다. 이런 2인자가 자식같은 목사들에게 어처구니 없이 당했다면 다음에는 1인자도 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교단을 사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생각한다면 금번에 조석연목사 등이 올린 개혁의 안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을 위해 일하는 인천노회 임원들은 개혁안에 대해 “목적과 내용은 좋으나 방법이 좋지않다”고 했습니다. 아마 석목사님의 약점을 가지고 조석연목사가 목을 죄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증거를 남기신 것은 끝까지 꺾손하지 못할 목사님의 성품을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최고, 최선, 최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석목사님은 10년 동안 전국여전도회 수련회의 강사를 계속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강구원목사가 영구적으로 해야 된다.(99년 속초발언, 혹시 강구원목사에게 약점을 잡혔습니까? 아니면 강목사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충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골프 때문에 예배시간을 바꾼 것 등등의 일은 보통 일

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목사님을 위시한 여러 목사님들은 자신들이 속한 교단을 목사님 이상으로 걱정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번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분들의 개혁안을 석목사님이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일을 계획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동안 참고 기다렸던 신목사를 합세시켰던 것입니다.

처음 석목사님의 여자관계가 확인되어 찾아갔을 때 진정으로 회개하고 교단을 위해 충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희들(이원조, 신재철)이 용서하나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개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잘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볼 때 이 모든 것은 거짓으로 판명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석연목사님 부부와 최근에 만나 식사하시면서도 개혁안을 수용하시겠다고 했고 금번 석목사님의 생신에 설교까지 맡기신 분이 인천노회 임시노회가 이 지경이 되어도 석목사님의 본심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까?

신목사는 지금까지 형님에게 칼부림을 당할 정도로 괴로운 일들이 있었지만 교단을 위해 파일을 쓰지 않고 참았습니다. 가정적인 고통도 인내로 넘겼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성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을 해왔습니다. 석목사님의 죄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가 꺾인 일로 어머니의 고통은 오랫동안 아니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어머니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내가 석목사를 끌어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가 휘방되는 것을 막는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열매가 오늘에 일어난 조목사님의 개혁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조석연목사님이 앞으로 잘하시면 모르지만 그렇지 못하면 후배들에게 조목사님 자신도 개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분명히 석목사님은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간의 행적으로 볼 때 척결대상입니다. 도무지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될 죄를 지었고 반성이나 회개의 빛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조석연목사님측은 그간의 석목사님의 공적을 생각하여 명예롭게 은퇴시켜 드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물론 남은 3-4년 동안 기회를 드리려고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단을 잘 마무리 하고 후배들을 잘 양성하도록 말입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목사님께서 석목사님을 너무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입니다. 이 일에 물론 이원조목사도 동감입니다.

지난번에 조원근목사가 석목사님께 급한 전화를 했을 때 신목사에게 14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셨는지요? 그후 조석연목사님 부부와 구 마포가든(현재 홀리데이인)에서 식사를 하시면서는 12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몇 년이 맞습니까? 제가 언제 목사님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위를 보장해 달라고 했습니까? 요구한게 있다면 단순히 지금 조석연목사님 등이 요구하는 개혁의 안들을 그동안 한 두가지 요구했을 뿐입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했던 목사님의 추악한 죄 때문에 용서는 했었지만 그 후에도 공사적으로 만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저로서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존경심이 무너 진채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목사님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다만 교단에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교단은 석목사님 때문에 더 타락해 갔습니다.

앞으로 개혁이 거부되고 엉뚱한 사태가 벌어지면 신목사는 초원교회와 더불어 그리고 합세하는 동역자들과 더불어 이 일을 공개적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처음에 석목사님과 약조할때 회개의 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앞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약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선생의 자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성을 담은 녹음도 했습니다. 물론 석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자신의 육성으로 여자관계를 인정해 준 테이프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나간 일을 들추어내는 것은 안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약점을 가지고 괴롭히는 것은 나쁜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죄질이 나쁩니다. 신학교 교장인 목사가 신학교 여직원과 깊은 관계를 가졌고 부흥강사로 나가셔서 그 교회가 잡아준 호텔에 계시면서 직원을 불러 관계를 가졌다니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훼손을 받은 것입니까?”

이 내용서신을 받고도 석목사님이 옳은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목사님

의 자녀는 물론 경향교회 장로, 장립집사, 서리집사, 전교인은 물론 목사님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를 받은 모든 목사, 선교사, 장로,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한국교회와 언론에도 공개하여 적절한 공적, 공개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저 자신에게도 영육간에 엄청난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개혁에 동참했으니 그런 각오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신봉하는 개혁주의 목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교단의 개혁이 더 이상 늦추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서신에 대한 구체적 회신이 늦어질 경우 저는 더 이상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총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저는 제가 받은 사명의 길로 갈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동안 석목사님에게 당했던 개인적인 감정이 극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기는 커녕 한 개인과 가정의 이기적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판단력이 어린 목사들을 이용하여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유치하기 그지없는 처신을 하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속한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남은 사역에 하나님의 용서와 더불어 목사님께 상처를 입은 많은 사람들의 용서도 함께 깃들여지는 좋은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조석연목사님과 개혁에 연대한 목사님들은 “이 교단에서 석목사님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그분이 모종의 역할을 하셔야 한다. 경향교회나 그 내부의 일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석목사님의 자녀가 경향교회의 대를 잇는다고 해도 우리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의중은 총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한데 목사님이 너무 관여하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목사님이 걱정하는 파일은 아무리 많은 소문이 났다고 할지라도 말 그대로 소문이지 이원조목사와 저만 갖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염려로 주의 일을 그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공감대가 되는 개혁안은 수용하십시오. 그러나 목사님의 경험과 진실한 판단으로 볼때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아니더라고

할 때는 설득하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신목사의 편지를 받고도 목사님의 모습에 변화가 없고 이전과 같은 위기모면 식의 처신을 하신다면 이제는 제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이 글을 대하는 형님이자 신장로님은 석목사님께 사주받기 이전의 형제간의 모습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형님이 존경했던 석목사님을 괴롭힌 일도 없습니다. 다만 석목사님이 바른 길을 가시도록 기도하고 극한 상황에서는 교단의 여론을 전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장을 바꿔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지금 조석연목사님을 위시한 여러 목사님들이 교육부장을 바꿔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높으신 분들이 제가 시켜서 그랬겠습니까? 신장로님도 석목사님의 일방적인 말만 듣지 말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다양한 소리와 상황을 판단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석목사님을 돕고 경향교회를 위하고, 교단에 유익한가를 알아 처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목사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했던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으시도록 명예로운 지도자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김길곤교수를 다시는 보내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2000년 9월 11일 신재철 목사가 드렸습니다.

경향교회 석원태 목사님과 당회원 여러분께

신선철 장로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석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을 우선 지면으로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1977년 1월에 신재철 목사(당시 경향교회 고등부 SFC 운동원, 후에 위원장, 전도사 역임)의 전도로 주부생활 빌딩 3층에 있는 경향교회에 등록, 출석하다가, 경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느라고 열심히 출석하지는 못했으나 79년 6월 경부터 우정빌딩 4층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중 석목사님의 중매와 주례로 81년 2월에 김순덕 집사(석원태 목사의 생질)와 결혼하여 93년 4월에 집사로 장립을 받고 99년 5월에는 강서시대를 맞이하여 장로로 세움을 받아 현재 24년째 경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사로 장립을 받은 후에는 모친인 박명옥 권사를 인천 초원교회로 이명하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석목사님께서 말하기를 "앞으로 장로가 되려면 어머니가 경향교회에 있으면 문제가 되니 목사아들 교회로 이명시켜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다'는 말은 박권사가 석목사의 7계를 범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맨하탄 호텔에서 박권사를 만나 석목사님이 필요 이상의 회유를 하는 등 불필요한 처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석목사님은 저의 장인 장모인 김열한 장로와 석삼순 권사(석목사의 누님)가 창원에 살고 있는데 아들과 딸과 사위들이 다 서울에 있는데도 지방에 모셔두는 것은 불효가 됨으로 온 가족이 경향교회에 출석하도록 석목사님이 권유하여 99년 11월에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1. 이○○ 사건 고발 경위와 배경

석목사님이 이○○양과의 성적 범죄사건을 저에게 90년초 봄에 여의도 은하아파트 맞은편 초밥집에서 진실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시며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진정 하나님과 사람 앞에 회개하니, 연약하고 불쌍한

목사님을 도와야겠다고 다짐하고 생각했습니다.

석목사님이 자주 동생 신목사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저에게 전달함으로 저는 그 말만 믿고 막내 동생인 신재철 목사에게 과도까지 들고 가서 죽인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식당에서 콜라병을 들고 죽인다고 한 적도 두어 차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목격한 모친은 형제간의 불화를 보고 쓰러져 20여일간 김성철 신경외과에 입원했던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한 것은 고려교단과 세계선교와 교회의 모든 일들을 석목사님께서 중추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99년 2월경 지하 2층 로뎀 4호실에 들어가니 김동진, 최창식, 황철호 장로 3인이 건축재정 문제로 논의중이었습니다. 그때 김동진 장로가 소파에 머리를 대면서 "아, 이제 정말 일좀 그만 벌리지"라며 괴로워 했습니다.

이때 제가 김장로에게 "뭘 그리 고민하십니까? 김장로님 장립시에 고려신학교에 수영장 만든다고 한 임직비는 어디에 썼습니까?(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신학교 건축시에 쓰지 않았습니까?)

현금목표(스튜디오 및 와이드 비전 설치)가 정해져야 10억원이 현금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확보되는 것이 문제지 쓰는 것이 문제입니까? 10억원이 확보되면 건축재정 어려움을 석목사님께 호소하고 전용하여 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 얼굴 표정이 금새 환해졌습니다.

어느 날 김포CC에서 최윤선 사모와 김순덕 집사가 동승한 차 안에서 김장로의 표정과 건축재정이 무척 어려운 것 같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니, 석목사님이 기분 나쁘다는 듯 무표정하더니 다음에 하는 말이 "신장로 자기가 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지 남을 핑계대고 일을 안하려고(저는 장로장립비 4천만원을 작성하고 납부함) 한다는 이야기를 최사모를 통해 김순덕 집사에게 전하고 와이드 비전은 이미 결정된 일이고 석목사님이 결심하면 안하고는 못배기는 성격이니 목사님 위신에도 문제가 있으니 신장로가 가만히 있는것이 좋겠다고 했습

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걱정하여 실제로 수고하는 김장로를 위로하기 위하여 한 말인데 석목사님은 진실을 왜곡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진심을 묵살하여 마음에 상처를 주고는 했습니다. 실제로 스튜디오와 와이드 비전을 설치할때 주택은행에서 40억원(신학교, 카스 주식 담보 및 장로들 보증)이 대출되어 원활하게 건축재정은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

94년 석목사님은 장로 부인들을 동반하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이때 이○○ 권사도 물론 동행했습니다. 96년에는 경향 어린이 선교원을 개원했는데 이 전후에 이○○ 집사(현재 권사)에 관한 여러 불미한 소문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특히 최윤선 사모님의 불평과 불만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저는 10년 전 석목사님이 이○○ 사건을 고백했던 일들과 겹쳐 혼돈과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장로님들보다 석목사님과 골프 회동이 잦았습니다. 석목사님과 골프중 또는 저의 차에서 동승 중, 차 안에서 본의 아니게 이○○ 권사로부터 석목사님에게 걸려온 핸드폰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통화는 "목사님 날씨 좋지요. 서울 날씨도 화창합니다. 제가 스포츠센타에 와 있습니다."라고 이○○가 말하자 "수영하고 기다리지 그래"라고 석목사님이 대답했고, 약 3년 전 최윤선 사모님이 장기간 미국체류가 있었을때 운동을 마치고 여의도로 진입하려고 하는 차 안에 동승하고 계신 석목사님께 이○○ 권사가 전화를 걸어 "지금 여의도 근방에 와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럼 오지 그래"라고 석목사님이 말하니 "예, 한 15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라는 통화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후 사택을 혼자 방문하는 모습(본인은 홍우빌딩 옆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걸어서 가던 중 동서증권 빌딩 앞에서 확인)을 보고 여집사들이 반찬 제공이나 사택 청소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 사건등이 연상되어 저는 제 집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여의도 숙모(최윤선 사모)는 도대체 뭐하는 여자야 당장 미국 작은 목사(석기현 목사)에게 전

화하여 내가 그런다고 빨리 어머니 보내시라고 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후 사정과 영문을 모르는 저의 처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무슨 이유냐고 따져 묻기에 부부간에 말다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99년 9월 어느 날 덕평 골프장에서 석목사님과 정원준 장로, 정광식 집사 그리고 본인이 골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운동후 식당의 중식 자리에서 석목사님은 고려신학교 2학기 개강 예배시에 장로부인들의 중창과 선곡이 너무 은혜스럽고 가사가 좋았다고 하면서 이○○ 권사가 교양도 있고 참 일도 잘하고 교회 간판으로 수고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이○○ 권사가 선곡했는지 확인을 해보니 사실은 이옥선 장로의 부인인 이기미 권사가 선곡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 주에 덕평 클럽하우스에서 아침 식사시 사실을 보고했더니 석목사님의 표정이 별로 안좋았습니다. 저는 이○○ 권사가 너무 교회 일에 공치사가 많은 것 같다고 직언을 한 적이 있고, 매주 월요일 김포CC에서 목사님이 골프를 하실때 여성팀 두팀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한팀만 사모님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오는 성도들이 보기에 장로 부인들이 새벽기도는 안하고 차에서 골프채를 운반하는 것과 주차장 CCTV로 이를 보는 관리 직원들이 시험에 들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또한 골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강서 성도들의 오해와 새성전 건축으로 인한 놀림이 성도 대다수에게 팽배해 있는 것도 염려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장로들도 골프를 하지 못하는데 여자들이 하는 문제 또한 이○○ 권사의 경우 십일조를 보면 수입은 뻔한 한 집에 차량을 세대씩 운행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언을 하니 석목사님은 “하고 싶은 사람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야. 일년도 안된 장로가 별 것 다 간섭한다”고 섭섭해 하며 너무 잡음에 개의할 것 없고 신장로가 너무 예민하게 대응한다고 언짢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99년 10월경 로템 4호실에서 최창식 장로와 저와 둘이 있었습니다. 이때 최

장로가 한숨을 쉬며 교회가 시험받는 여러가지 일들 중에 제일 쉽고 큰 것이 여자문제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사실을 확인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탄이 시험한다고 크게 한숨 쉬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최장로도 이○○ 사건을 알고 있고 부인을 통해서 이○○건으로 고민하는구나 생각하고 “여자들이다 보니 말도 많고 질투, 시기가 많아 그런 것 아닙니까?”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경향학원 이사회에서 목사님이 박영철 교장 때문에 불편한 이야기를 하자 여러 장로, 목사, 집사들 앞에서 최창식 장로가 황장로에게 목사님을 똑바로 모시라고 면박을 주면서 “도대체 당신 여기에서 봉급을 받고 무엇하는 사람입니까?”라고 크게 혼내는 것을 보고, 장로가 장로를 질책하는 것을 보고 ‘이○○ 권사 건으로 최장로도 말은 안하지만 고민하고 있구나’라고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수개월 전부터 최사모님과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 부인들의 대화 중 이○○ 권사를 지칭하면서 “저년 목욕하다가 목사님 전화 받느라고 뛰어나오다 자빠져서 얼굴 다쳤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때린 것이다. 황장로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라는 말을 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또 99년 가을에 신임 장로 부인들과 신임 권사들이 중심이 되어 장로 부인들의 설악산 여행시에 한화콘도에서 저녁에 석목사님이 전화로 최사모를 빨리 오라고 재촉하니 여러 장로 부인들(박이순, 김순덕, 석기숙, 홍공희)이 있는 자리에서 이○○ 권사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하는 말이 “다 들어가면서 되게 챙기고 있네, 참말로 눈꼴서서 못 보겠어” 하는 소리에 장로 부인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일부 장로들에게 전해, 그것을 장로들로 부터 전해들은 바도 있습니다.

2000년 1월 초순경 석기숙 집사는 이성희, 주숙자 권사와 찜질방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순덕이 너 이○○가 석목사님 애첩이라는 소문을 들었느냐”라고 하기에 제 아내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석집사는 “성가대를 하고 있는 장로 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고 있는데 큰일이다”라고 걱정했습니다.

사택을 계속 출입하는 박현순, 선우진숙 집사가 “최윤선 사모가 이○○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린 것 같다”고 하며 “신장로가 교회를 위해 할배(석목사님)에게 이야기 좀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이 줄줄이 불려가 줄초상나고 혼나도 좋으니 꼭 목사님께 말할 사람은 신장로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박현순집사는 장로 대 장로끼리 황철호 장로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니 강희석 장로가 황장로에게 전화하여 집사람 단속 잘하라고 고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자들을 통해 이런 말들을 듣고 “이 여자들 미친 여자들 아니야, 지금 이 어느 시기인데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면서 전하느냐”고 했습니다.

2000년 3월 초순경 최윤선 사모가 제 아내를 사택으로 불러 “삼촌이 아직도 이○○와 몰래 전화하고 스포츠센타에서 만나 식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번은 월요일에 김포CC에서 골프 후 최사모에게 석목사님이 신학교를 간다고 했습니다. 예감이 이상해서 최사모는 강변스포츠센타에서 선우진숙 집사를 보내 확인하니, 석목사님이 골프 레슨을 한다고 이○○의 손을 잡고 난리더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박현순 집사도 강변 스포츠센타 회원이어서 가보니 석목사님과 이○○ 권사가 런닝머신을 하면서 다정하게 이야기 하는 장면을 보고 눈꼴서서 못보겠다고 했습니다. 목동지역에서 석목사님과 이○○가 식사하는 것 등을 목격한 여집사가 최사모에게 전화로 알려준 적도 있습니다.

최윤선 사모는 제 아내에게 “두 아들이 목사인데 아들들 생각도 안하고 저러니 큰일이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여기 저기서 듣고 삼촌에게 전했더니 “석목사님이 허튼 소리하면 이년 죽여버린다고 과도를 목에 대고 찌른다”고 하여 최사모님이 “당신 손에 죽는 것이 행복하니 죽이라”고 하면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썽들을 사모님이 제 아내에게 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제 아내에게 듣고 더욱 더 큰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2000년 3월 30일 관악CC에서 운동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석목사님에게 이○○권사의 가족이 교회로부터 제일 많은 혜택(교회 차량보험, 황철호 장로의 직장)과 사랑을 받아 과잉 충성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중직을 맡고 있는 장로 부인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고 말이 많으니 신경 쓰시고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교회 지하1 층 주차장에서 하차할 때 “신장로 고마워 하나님이 신장로를 통해서 입을 열게 한 것 같애”라고 말씀하시며 고마워 하셨고 “시험들지 말고 기도 하자”라고 하시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30분도 안되어서 석목사님은 박현순, 선우진숙, 석기숙, 김순덕 집사 등에게 전화해 확인하고 이야기를 한 후 본인에게 저녁 때 전화해서 “목사에게 말을 전하려면 똑바로 알고 전해라”고 했고, 다음날(2000년 3월 31일) 아침에 또다시 전화해서는 “장로가 되어 가지고 목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새끼가 무슨 장로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아”라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신앙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석목사님의 여러 가지 행태에 번민과 고뇌가 연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4월 5일 당회장실로 아내와 기도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고 당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신장로 내일 골프 예약했나?”고 하길래 화가 나서 “골프 이제 손났습니다”라고 답하고 약 2개월 정도 골프를 쉬었습니다.

석목사님은 제 아내에게 “순덕이, 너는 무슨 여편네가 장로에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목사를 오해하게 하느냐, 목사를 음해하려면 정확한 물증과 증거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은 년놈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처치해 버려야 한다”는 목사의 품격에 맞지 않는 막말을 하여 저와 제 아내는 위로는 커녕 마음에 상처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2000년 4월 21일 정사기념 예미시 석목사님은 “한경직 목사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그 교회 장로가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중생 못받은 장로(저를 지칭한 듯)가 있다, 건축위원장은 김동진이가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장로와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석목사님은 그후 4월 23일 부활주일에 지하 2층 총회사무실에서 김동진 장로가 건축위원장직 사임의사를 일주일 전에 최창식 장로를 통해 목사님에게 전했다고 하기에, 제가 “김장로님 건축위원장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니 석목사님 개인이 준 직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사임하시면 안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김장로는 저에게 집사람(박현순집사)에게 들었는데 “신장로님 참 용기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이○○ 권사에 관한 이야기를 석목사님께 직언한 일에 대한 위로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저는 “석목사님 시대에는 현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선임 장로님들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김장로는 “석목사님 인격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장로는 말하기를 “교회를 위해 신한은행 대출건으로 은행관계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스 모스크바 지사장인 김중호 집사가 김장로와 회의실로 같이 걸어가다 김집사가 쓰러지는 광경을 현장에서 목도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김장로와 저는 서로 위로하고 손을 붙잡고 울면서 약 15분 동안 통성기도를 하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후 제가 이○○ 권사건을 직언한 일로 석목사님께서 강단을 통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창식 장로가 저를 위로하려고 선배 장로로서 찾아온 적이 있는데, 이때 저는 김장로와 서로 위로하고 헤어진 사실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석목사님은 99년 가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신재철이와 이원조가 내 앞에서 찢고 불태운 이○○가 확인해 준 문서 사본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답하기를 “목사님 10년이 다 된 사건인데 무슨 확인서가 지금 있겠습니까?”라고 했는데 이○○ 권사와 계속되는 소문등을 생각할때 연계해서 회개를 촉구하지 못한 것을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답변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9년 9월 13일부터 이틀간 제 3회 국제학술 경연회가 있었습니다. 이 강연회가 끝난 다음 주간에 석목사님과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제 차안에서 석목사님은 말하기를 “각 지교회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학술강연회 교회분담금 100만원을 신목사만 유독 내지 않아서 교단목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다. 총동문회장인 홍록두목사에게도 신목사가 질책을 받았다(나중에 확인해 보니 홍목사가 전화한 일이 있어 신재철목사는 답하기를 이게 무슨 국제학술 강연회냐 석원태목사 아들인 석기신목사의 담당교수에게 잘보여 아들의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냐라고 질책하니 홍목사가 이해해야 된다고 기분이 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득했음”고 하면서 “내가 살아 있을 때에는 괜찮겠지만 사후에는 신목사가 교단내에 설자리가 없을 것 같고 내 무덤을 파헤치고 하나님께서 용서한 사건(이○○ 사건)을 세상에 공개할 놈”이라며 “아무래도 목사가 아니고 신들림 사람 같다”고 이야기 하며 교단을 떠나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석목사님의 말만 듣고 동생을 목사로 보기보다는 단지 동생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학술대회건은 누가 보아도 신목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 부모님 댁에 생활비를 드리기 위해 2000년 4월 중순에 들리니 어머니 말씀이 “신목사가 교회를 빼앗길 뻔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15일 오후 6시에 여의도 홍보석식당에서 교회 설립 기념 장로부부 동반 식사에 참석을 안했고, 5월 10일 교회설립 부흥회 마지막 날에 장로들과 강사인 강구원목사와 강단 앞에서 기념 사진을 찍고 사례를 전달하는데 참석하라는 광고를 들었지만, 인천노회에서 4월 10일에 동생인 신재철 목사의 당회장직을 6개월 동안 정직하려고 했던 건으로 마음이 상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석목사님이 정원준 장로에게 전화를 하면서 “전화 왔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오늘 신장로 교회에 왔느냐”고 확인하고 귀가 중인 저에게 성난 음성으로 “당장 순덕이하고 당회장실로 와”라고 전화를 세 번씩이나 해서 “지금 동부간선 도로가 막혀 시간이 많이 걸리니 내일 아침에 찾아뵙

겠다”고 하고 응하지 않으니 일방적으로 새벽 1시경 박용철 강도사를 대동하고 심방을 온다고 하여 저는 외출하여 심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후 5월 11일에 초원교회 사택으로 신목사를 방문했습니다. 신목사는 방문을 받지 않으려고 피했지만 저의 노력으로 만났습니다. 수년 동안 신목사는 저와의 대화가 없었지만 이날 저의 노력으로 신목사는 약간의 마음을 열어 노회에서 되어진 일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신앙과 목회철학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노회의 일을 확인하기 위해 기독교실업인회 사무실에서 전후사정을 잘 알고 있는 김길곤 교수에게 물으니 “강구원 목사가 부흥회 중 월요일날 석목사님께서 신목사건을 보고하니 자기도 불려가서 정치를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하며 강목사와 자기가 혼났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신목사를 위해 노력하는 억울하게 오해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길곤 목사에게 신목사를 치리하고자 했던 죄목을 본인이 물으니,

1. 병역실명제건(후에 확인하니 신목사가 안산 생수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예화로 하고 실명을 들어 거명은 안했음. 이는 생수교회 당회장인 이길봉목사도 확인해주었음. -그러나 석기신목사는 영국 유학으로 실제 병역을 미필함. 조석연목사는 신목사가 설령 석원태목사를 거론했다 하더라도 치리건을 될 수 없다고 했고, 홍록두목사는 인천노회 임원들이 도저히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고 말함.)

2. 교역자 전국수련회 중 교육부장 강구원 목사가 사회를 보면서 강도사들이 특송을 할 때 청중들을 바라보고 하다가 마지막 절을 부를 때에는 뒤돌아서서 강단에 있는 석목사님께 손을 들고 찬양을 드리라고 했는데 신목사가 이를 소문내며 불평했다고 함(신목사는 그 수련회에서 참석하였으나 첫날 되돌아 왔기 때문에 그 현장에는 있지도 않았는데 현장에 있었던 이길봉 목사를 위시하여 여러 목사들이 흥분하고 있다며 그 사실을 전하여 알았을 뿐임) .

3. 국제학술세미나건에 대한 불평을 한다고 함(신목사가 소신을 가지고 처신한 것이며 실제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의외로 많은 목회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음).

4. 신목사의 고신대학원 석사과정 입학건(도무지 이해가 안되지만 신목사는 김장진 교수가 이미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항변).

5. 강구원목사는 경호실장, 김길곤목사는 비서실장이라고 이야기 한 점(이 말은 조석연목사가 강구원목사와 통화시 한 말인데 신목사가 한 말인 것처럼 소문이 나서, 신목사가 조목사님께 왜 제 이름이 거명되냐고 물으니 조석연목사는 중부노회 목사들이 비서실장, 경호실장 운운한다고 했지 신목사와는 관계 없다고 답변함)

신목사를 치리하려고 했던 내용이 위와 같다는 이야기를 김길곤 교수로부터 듣고 젊은 목사가 충분히 설교 중 또는 대화 중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석목사님이 지은 죄가 있어 과잉반응했고, 신목사를 불러서 주의나 타이름이 없이 노회 임원들을 사주하여(석목사님이 직접 저에게 말하기를 신목사 버릇이 나빠서 혼 좀 내겠다고 말함) 당회장직을 정직시키려 했다는것을 본인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년 5월 25일 오전 9시 홍승태집사가 부친상을 당해 부여를 방문하였는데 석목사님이 전화를 걸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자식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며 서울 올라오는 대로 교회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응하지 않으니 다음날 오후 3시경 전화를 해서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하기에 “죄는 목사님이 짓고 왜 고통은 신목사가 받아야 합니까?”하니 “나는 전혀 모르는 이야기다, 인천노회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답했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자신이 사주한 일이라고 해놓고). 5월 8일 낮에 신목사건을 강

구원목사가 석목사께 보고한 것을 김길곤목사를 통해 확인한 바 있어 “그러며 고려신학교 교장직을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교수들이 각자 9개 노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고도 못받으시는 허수아비 교장직을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라고 말했고, “석목사님이 지은 죄는 증거도 확실한 사건이며, 대통령도 해결 못하는 사건을 더 이상 강구원, 김길곤 목사들을 데리고 더러운 정치 그만하십시요”라고 했습니다.

석목사님은 말하기를 “그럼 신장으로 시키는대로 할게”라며 “나 미국 가서 안돌아온다”라고 하길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 말은 더이상 목사님의 레임덕이 생기기 전에 2대 당회장을 결정하시고 노년의 남은 사역을 잘 마무리 하라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월 9일 저녁에 교회 앞 장원복집에서 김길곤목사를 만난 자리에서 “윗분을 모시려면 똑바로 제대로 모십시오. 김목사님은 신목사와 석목사의 관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당회장직 정직치리 미수사건) 오게 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경고했더니, 김길곤교수는 “억울하다”고 하며 저에게 석목사님이 미국에서 돌아오시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해라”고 하길래 “내가 알아서 하니 강요하지 마십시오”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 초원교회가 이상규목사를 강사로 부흥회를 가졌을 때 2000년 5월 24일 인천노회 등의 목회자 20여명에게 인천노회 신목사 처리부결에 감사하는 뜻으로 석식을 인천 경복궁식당에서 대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젠 화해하고 신장으로 다시 골프하지”라고 하여 7월 25일에는 프라자에서 8월 3일에는 수원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석목사님은 정원준 장로에게 전화를 해서 “신장과 골프하기 싫으니 다시는 골프치자고 전화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먼저 골프를 하자고 했습니까? 목사님의 인격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8월 11일에는 강병길장로와 일산 골프연습장에서 만나 대화를 했습니다. 석목사님은 강장로에게 전화를 해서 저의 근황을 물었는데 강장로는 신장로가 마

음이 많이 상해 있다고 했습니다. 석목사님은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하여 당회장실로 가니 “내가 교단 목사에게 들으니 신장로가 교회를 떠나려고 한다고 들었다”며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일이니 절대로 그런 생각 말고 정말 이제는 깨끗이 끝내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석목사님이 강장로에게 들었다고 하면 되는 것을 거짓으로 말하고 “신장로, 계속 그런 행동하면 장로사회에서 왕따 당하는 줄 알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물론 목사님이 거짓으로 이간질 시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장로 부인인 박현순집사가 제 아내인 김순덕집사에게 “신장로는 아무래도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박현순집사는 과거 이○○권사건으로 장로들이 석목사님께 이야기 좀 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8월 14일 저녁 교역자와 장로 부부 등이 문산수양관에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시험받은 이야기를 하며, 조석연 목사 등을 통해 받은 소위 개혁 건의사항(17개 조항)을 세 가지만 이야기 하며 왜곡되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저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혼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 9월 2일 석목사님 생일에 여의도 홍보석으로 조석연 목사 부부를 초청하였고 특별히 조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하여 ‘이제 제대로 교단 일이 되어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9월 8일 인천노회 임시노회에서 이제 신학교를 갓 졸업한 강도사가 안수받은지 10년이 넘는 신목사에게 “이 개새끼 내가 죽인다, 파일을 가지고 스승을 괴롭혀?”라며 주먹질을 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저에게는 신장로가 신목사와 가깝게 지내지 않을 때는 내가 너를 자식보다 사랑한다고 최윤선 사모에게 이야기 했다라며 여러 감언이설로 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형제간의 우애가 금이 가도록 계속 사주했습니다) 석목사님의 의중과 강도사의 폭행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9월 10일 건축실무위원회 기도회 후 총회사무실에서 김영우장로를

만났습니다. 이때 손옥전도사가 김장로 부인인 주숙자권사에게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 강사를 석목사님이 못하게 하도록 신장로가 이야기 하고 다닌다”라고 말했답니다. 이때 주권사가 “신장로가 그럴 사람도 아니고 석목사님과 인척관계인데 함부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답니다. 김영우장로는 주권사에게 이 말을 듣고 저에게 앞으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충고를 했습니다.

9월 19일 교단 50회 총회일 아침 7시경 석목사님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신장로 내가 어제 저녁에 흥분해서 미안해, 잠 잘 잤나?” 하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는 이야기인데 신재철이는 이제 목사 아닙니다. 오늘 내가 끝냅니다. 죽여 버립니다. 그 새끼는 어디가서 목회하든 대한민국 어디든지 내가 쫓아가서 죽여 버립니다”라고 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저는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석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사람입니까? 인두깍을 쓴 목사입니까? 장로들이 집을 담보해 주고 보증을 서니 이제 배째라는 이야기입니까? 나도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합니다. 당신을 내가 먼저 고발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곧바로 최창식장로에게 전화를 하니 연락이 안되어 김동진장로 등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김동진장로는 9월 17일 1부 예배가 끝난 후 로템 4호실에서 저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제 새벽에 신장로 꿈을 꾸었다고 하며 “신장로가 고통스러워 하고 암에 걸려 다 죽겠다고 괴로워하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다 나왔습니다라고 하며 환한 얼굴로 웃길래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니 약먹고 다 나왔습니다”라고 했다는 꿈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말하기를 “장로님 그 꿈이 저는 장로님에게 깊은 내용 설명을 못해도 응답받은 꿈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1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신목사로부터 교단의 개혁건의안과 세 가지 조건을 석목사님이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신목사는 김길곤교수를 통해 조석연목사 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소리를 듣고 세 가지 안을 설명하

니 김교수가 석목사의 결재를 받았으며 다 수용한다고 했다고 함).

이처럼 석목사님이 조석으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죄없는 동생 목사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작태에 더 이상 저의 인내가 바닥나 김동진장로를 위시한 6명의 장로님들에게 이○○ 사건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건 고발한 이후 2000년 9월 24일 오전 8시 15분 아들 상민이와 함께 제 차로 교회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잠시 동부간선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미국에 있는 강용만목사와 약 20분에 걸친 국제전화를 했습니다(001-1818-5009936). 이때 강목사는 교단에서 제명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석목사의 인격 때문에 자신이 당한 고통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목사는 지금 신목사가 당하는 고통을 자기는 이미 2년 전에 교회와 함께 당했던 산증인이라며 신목사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위로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목사는 신림동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던 시절에 자신의 집이 바로 학교 정문 앞 언덕 위에 있어서 누구든지 교장실에 출입하는 것이 잘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창밖을 내다보면 늦은 시간에 이○○가 혼자 교장실에 출입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답니다. 교장실안에는 방과 침대가 있었습니다. 후에 강목사는 이○○에게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석목사와 간음한 사실을 고백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너무 괴로웠으나 교단을 생각하고 자신의 몸이 한쪽 पै가 없는 불구여서 석원태 목사를 심판하지 못하고 조용히 미국선교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 석목사가 미국까지 사람을 보내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켜 너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목사는 노회에 고소를 했다고 하면서 그 자료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2년 전에 한국에 와서 공개심판을 하려고 하다가 말았으며 만일 그때 신목사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으면 끝내는 것인데 아쉽다고 했습니다. 강목사는 “석목사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다”라고 말하면서 “황영석, 조용선목사와 함께 공조하는것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또한 자기는 정원남전도사와 친구이고 그의 형 정원준장로에게 자기에게

전화 좀 해 달라고 부탁하여 저는 정장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2000년 10월 7일 저는 강희석장로가 경영하는 인천 전우가든 식당에서 신재철, 조원근, 추경호, 김규한목사 등과 점심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합석한 강희석장로는 이미 소천한 정요셉집사 부부 석목사님의 둘째 아들인 석기성 집사 부부가 비슷한 나이이고 친하며 사업상 금전관계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석기성집사 아내가 정요셉집사의 아내인 지미숙집사에게 자기 시어머니인 최윤선사모가 이○○집사를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당시 이○○집사는 경향선교원 원감이었고 지미숙집사는 경향선교원 교사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지집사가 소문을 냈고 그 소식을 석목사님이 듣고 지미숙을 불러다 놓고 증거를 대라고 다구쳤답니다. 그때 지미숙집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니 석목사님이 “이 독한년 당장 가족들을 데리고 교회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사도 선교원 원감직을 그만두게 했다고 하며 석목사의 배○○, 김○○전도사, 이○○권사 등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최윤선사모로부터 나온다고 강장로는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경향교회 장로님들과 여러 장로들에게 교단중진 7인 목사들이 개혁건의문과 신재철목사가 석목사와 저에게 보낸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사건을 고발한 배경은 7계를 범한 석목사님이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하여 9계를 범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도 교단과 교회를 위해 참았습니다. 그러나 6계까지 범하는 단계까지 가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목사를 6개월 동안 당회장을 정직하려다 1차로 실패했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자숙해야 하는데, 다시 제명하려고 했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신목사가 참을 수 없어 교단 내외에 성명서라도 내고 교단목사들에게 석목사가 7계를 범한 것, 그것도 7년 동안 뿐만 아니라 부흥회 강사로 가서 숙소에서 이런 죄를 범한 것을 서면으로 발송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향교회 장로들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대출보증까지 서줘 속된 말로 석목사님은 배째라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하며 간음죄를 짓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니 인간적인 실망감과 배신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교단의 여러 목사들이 지나친 석목사의 교권행사와 타교단에서 교주로 칭함받고 있는 현실이고 서로간에 이간질을 시키는 인격 등에 대하여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일에 공감을 했습니다. 석목사님 자신이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변화되어야 하나님 앞에 교회와 교단이 바로 설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힘만으로는 어려워서 김길곤목사, 최창식장로, 강병길장로를 3회 이상 만났고, 김동진장로도 한번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도움을 얻지 못해 7인의 선임 장로들에게 전화로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장로님들은 저의 입장과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때의 대화내용들은 사적인 것으로 필요하면 추후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개혁건의문 전달 경위와 배경

2000년 7월 17일(월) 오전 8시 30분경 석목사님께 전화를 받고 당회장실로 갔습니다. 이때 석목사님은 “신장로, 신목사를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만들어 보라”고 부탁하여 인천 초원교회 사택을 방문했고, 신목사와 면담을 하면서 교단내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신목사는 교단내의 큰 교회 7인의 중진목사(조석연, 황영석, 조용선, 김석구, 이길봉, 김경렬, 윤화연 등)들이 개혁을 추진하는데 신목사는 그 대열에 함께 할 서열이나 위치가 못되고 다만 이길봉목사의 부탁과 설명을 듣고 자기 교회 여직원에게 타자를 맡길 수 없으니 신목사가 타자를 쳐달라고 부탁하여 한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깊이 알려면 수장인 조석연목사에게 연락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단문제라서 본인은 먼저 최창식장로와 사전협의하려고 통화를 시도했으나 이성희권사와만 통화가 되고 최장로와는 연결이 되지 않아 인천 송도비치호텔 일식당에서 조석연, 이길봉, 추경호, 신재철목사와 본인이 약 두시간에 걸쳐 중식을 겸한 대화를 했습니다. 주내용은 조석연목사의 말이 “고려교단이 너무 석목사님의 독선과 독주로 인하여 사유화 되고 있고, 타교단에서 심지어 교주라고까지 공격을 받고 있어 내가 순교적인 각오로 교단개혁을 주도하고 있

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목사는 지난 7월 15일 경향교회 당회장실에서 총회장 양문화목사, 부총회장 이종래목사가 합석한 자리에서 석목사님과 너무 이야기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석목사님은 조목사님께 “참 잘 되었다. 내가 교회건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신경쓰는 일이 많은데 후배들이 커서 교단의 짐을 덜어준다니 참 고맙다, 그럼 고려신학교장직도 그만두어야 하느냐, 김길곤이는 학벌이 너무 없고, 김장진이는 아직 박사학위를 취득 못해서 걱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조목사님은 “목사님, 아닙니다. 교단의 고시부장, 선교부장 등 실무직만 그만두시고 교단의 창시자로, 어버이로 존경받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목사와 총회장은 5분 정도 이야기 했고 석목사님아 30분 이상 이야기 하면서 조목사님에게 석목사님은 차고 계신 로렉스 시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1200만원짜리야 라고 하는등 잡담도 하고 부동켜 안기도 하고 조목사의 전립선염 부위에 안수기도도 해 주고,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조목사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자신들이 오늘 아침 서교호텔에서 모였는데 6인 목사들이 “석목사님 참 위대하신 분이다. 이 시대의 거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어버이로 잘 모시자고 기도하고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조목사님 본인은 석목사님에게 전하려고 했던 건의서를 분위기가 너무 좋아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왔답니다.

이때 이길봉목사는 건의안을 내놓으면서 “지금 석목사님이 엇그저께의 분위기와는 달리 말을 바꾸고 계신데 개혁에 동참한 목사들이 합동으로 석목사님을 대면하여 전하면 석목사님의 체면과 위신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왕 경향교회 장로님을 만났으니 편지만 전해달라”고 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창식 장로와 전화로 상의한 후 건의문을 석목사님께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석목사님과 제가 대담할 때 총회장 양문화목사가 먼저 들어왔고, 나중에 신재철목사의 당회장직을 정직시키려고 표결까지 붙였던 천환목사와 임재훈목사가 들어오니 석목사님께서 “신장로 수고했어”라고 말하니 천환, 임재훈목사의 환한 표정이 금방 경직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아마 신재

철목사의 형이라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의문을 전달받은 후에 교단행정에 불복하려는 조짐이 있어 긴급좌담 및 기도회를 소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석목사님은 저를 통해 건의문을 전달받았으면 개인적으로 보시고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설득하시든지 훈계하면 될텐데 교단 전체적으로 문제를 확대해 갔던 것입니다. 이 건의안은 석목사님의 지시로 당일 참석했던 모든 교역자들에게 배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3. 임시당회시 석목사님 발언에 대한 확인과 해명

2000년 9월 19일 (23:00-01:00) 임시당회시 ‘이런 사태가(신장로가 오래된 석목사의 성적 문란 사건을 폭로한 것) 오게 한 이유가 무엇이나’고 묻는 질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인척문제는 관련이 없느냐는 질문에 “인척문제도 약간 개입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두번의 실수가 아니고 고려신학교 여직원과 수년간에 걸친 상습적 간음죄(석목사가 시인)를 범하고, 그것도 다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할 때 숙소에서 이런 짓을 했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석목사는 교단내의 소문을 잠재우기 위한 일들을 계속하다보니 파생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교단 목사들은 이간질(조석연목사 개혁안의 석목사를 향한 건의사항 5번에 이간질 시키는 문제가 명시됨)하고, 제9계(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를 범했고, 제6계(살인하지 말지니라)를 범하려고 목사직 정직, 제명 등을 쉽게 하는 사태를 보았고 직면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으로서는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시다.

저는 석목사님과 8년 동안 골프를 매주하고, 거의 4년 가까이 저의 차로 동행했습니다. 또한 3회에 걸쳐 태국, 싸이판, 제주도 등으로 원정골프를 하면서 석목사님의 인간적인 내면을 너무 깊이 보고 듣고 접했기 때문에 급기야는 신앙양심상 진실과 정의편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임시당회시 최창식장로가 이○○사건과 관련하여 석목사님이 대관령을 넘어 강릉에 가서 교회개혁을 하려고 했다는 서두의 말은 제가 알기에 이○○사건이 아니고 정겸효장로의

사건(교인들의 사채문제 등)이 발생하여 석목사님이 말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당회시

1. 신재철목사가 석목사의 약점을 빌미로 시장 잡배들도 하지 않는 고려신학교 교수직을 달라고 조건을 걸었고,
2. 신재철목사가 12개사의 신문기자를 동원하여 X파일(석목사 여자사건)을 공개하려고 협박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처리되었다고 했고,
3. 인터넷이나 이단인 강서로 교회 목사를 만나려고 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니 과대 포장되고 왜곡되고 신목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나온 표현들입니다.

1) 고려신학교 교수건은 신목사 자신의 요구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조석연, 황영석, 조용선, 이길봉목사 등 소위 개혁파 4인의 목사들을 만나서 확인해 본 결과 네분의 목사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신목사가 고려신학교에서 강사를 해야 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하나는 석원태목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가까이서 감독자역할도 하고 교수들에게 석목사가 계속해서 거짓말하여 세뇌하는 것을 감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목사가 살아야 개혁측 목사들이 다치지 않고, 중요한 것은 10년 동안 신목사를 석목사가 수없이 많은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매도했기 때문에 교단내에서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석원태목사가 공·사적으로 수도없이 신목사를 교수요원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약속이행 차원에서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신목사 자신은 수년 전 고려신학교 성서학과에서 약 2년 정도 강사를 감당한 적이 있는데 본인이 양심상 자원해서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고려신학교에서 7년을 공부하고도 무인가 학교여서 학생들은 학사학위 소지자가 많은

데 본인은 당시 학사학위 조차도 없는 현실이 고민이 되고 괴로워서였습니다. 또한 석목사가 신학교 행사때마다 현재의 교수들의 학벌을 과대포장 할 때마다 더욱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일반대학과 고려신학대학원(목사과정)을 마친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부산 고신대학원에서 역사신학(교회사 전공)을 전공하고 있으며, 이상규 담당교수의 배려로 고신대학과 부산신학교에서 종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목사 본인은 본인 공부하랴, 목회하랴, 이따금 강의도 하랴, 시간 내기도 어려운 형편임에도 4인의 중진목사들의 뜻이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전한 것 뿐이었습니다.

김길곤교수에게 이 안전을 전할 때 신목사는 자신과 관계된 일이므로 누차 배경설명을 했음에도 김교수는 석목사에게 본질은 호도하고 석목사의 죄를 이용하여 교수직을 이용한다는 엉뚱한 논리를 펴서 진실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2) 신문기자를 동원하여 X파일을 공개한다는 협박건은 신목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과거에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던 조용선목사님의 지인인 한 크리스찬신문사의 편집장이 우연히 개혁안을 보고 석목사님께 “이번 총회에서 개혁이 됩니까?” 라고 물어 석목사님이 “우리 교단 처럼 은혜롭고 평화스럽게 총회가 진행되는 곳이 어디있고 개혁안도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신목사는 총회도 참석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신문기자도 없고 폭로를 해도 그런 저속한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석목사님이 자기 합리화를 위한 과잉방어 방법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 명백합니다. 우리교회 어느 장로는 말하기를 “실제 신목사가 신문사에 투고를 했다고 치더라도 석원태목사가 뭐 대단한 사람이길래 기사를 싣느니 마느니 통보를 했겠냐며 흥분했습니다. 공작정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석목사와 당회가 한심하다”고 까지 했습니다.

3) 인터넷과 강서로 목사건은 신목사 자신에게 신상의 불이익(이제는 당회장

권 정직 정도가 아니라 면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신목사가 김길곤교수에게 말하기를 “죄는 석목사가 짓고 질 필요가 없는 십자가를 내가 지게 될 때 최후수단으로 공개심판을 택하여 대응하겠다”는 내용이었지 시행되지도 않은 가상 시나리오를 보고받고 석목사님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확대 왜곡하여 주장한 것입니다. 신목사는 주장하기를 본인은 인터넷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개혁측 목사님들이 “인터넷에 떠야 여학교 이사장인 석원태목사에 대해 학부형들이 데모를 하고 그래야 정신을 차려든지 물러나든지 할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했습니다. 강서로 교회는 처음에도 이단인지도 몰랐고 경향교회와 가까이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져 석목사의 실상이 공개되어야 정신을 차려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나온 말이었고 주변의 다른 교회는 이름을 몰라 거명을 못했고 그 교회가 이단인 것은 후에 김길곤 교수가 알려 주었습니다.

4. 최창식장로와 협상 및 면담내용

저는 이○○사건을 고발하기 전에 저 혼자의 능력과 힘으로는 석목사님을 설득하고 이해시킬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김길곤목사와 교회에서 두 번, 식당에서 한번, 총3회에 걸쳐 면담을 했습니다. 또한 최창식장로와 교회에서 두 번 만나고, 회사를 방문하여 한번 만났습니다. 전화통화도 두세번 했습니다. 강병길장로와는 교회 외부에서 세 번 만나고, 김동진장로와는 교회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이들을 만날 때 7인 중진목사들이 추진한 교단 개혁안과 신목사 사건을 이야기 하고 협조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김동진장로는 아버지가 교단과 교회정치에서 희생되고 치리되는 것을 너무 어려서부터 보아와서 간섭하고 개입하기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최장로는 어머니의 유훈과 본인이 장로로서 목회자를 섬기는 관점이 목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하면서 더 이상의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김길곤목사는 앞에 말한대로 별 소신이 없이 석목사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강병길장로와 대화할 때 저는 말하기를 목사님 주변인물(강구원목사 등)들이

석목사님의 배경으로 전횡을 못하도록 막아보자는 이야기와 이○○권사와의 소문들을 지혜롭게 처리해서 교회에 덕이 되게 하자고 했습니다. 또 석목사님 노년의 사역을 잘 마무리 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장로는 제가 박현순 집사가 신장로가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다는 이야기만 석목사님께 전했습니다.

2000년 9월 21일 롯데월드 비즈니스룸 12:00-14:00에 최장로를 만나 다음과 같이 대화했습니다.

석목사님을 대리한 최창식장로에게 저는 먼저 석목사님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믿고 신목사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대화하면 이야기가 안되니 교단 중진목사들이 건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어보라고 건의문을 보여주었습니다(최장로는 그때까지는 석목사님을 통해 왜곡된 두 세가지만 들었을 뿐임). 또 사건의 본질인 이○○사건과 관련하여 신재철목사가 쓴 ‘경향교회 석원태목사님과 신선철장로님에게’라는 14페이지에 달하는 서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곧바로 소감을 물으니 최장로는 “신목사님에 대한 편견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대화합시다”라고 말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주된 내용은 ① 신재철목사가 교단내에서 정상적으로 목회활동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달라. 이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장로가 그러면 고려신학교 교수건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기에 ② 본 건은 신목사가 주장한 것이 아니고 교단 중진목사들이 주장한 것으로 신목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답했고 그나마 중진목사들이 정식교수도 아닌 시간강사를 요구했고, 고신대학원을 졸업하여 자격을 갖추면 전임강사를 요구했다고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최장로에게 중진목사들의 의중을 전하면서 강구원목사를 교육부장에서 물리치는 일이나 하자고 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③ 석목사님의 최측근 보고라인인 김길곤목사를 평교수로 남기든지 아니면 개척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교수는 저에게 매주 화요일 신학교에서 석목사님께 여러 교단문제를 보고한다고 자랑삼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김교수를 정리하지 않으면 신목사건이 언제 또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 조치하라고 했더니 최장로는 동감하고 지금은 학기 중이어서 조치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김교수는 지금까지 신목사가 교단을 사랑하여 일어난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전하면 석목사님께 신목사가 마치 무슨 일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확대 왜곡보고를 해 왔습니다. 최장로는 석목사님은 누구든지 제일 먼저 보고하는 사람의 말이 진실이 된다고 말하였고 제가 김교수는 10년 전에 400만원 셋집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아파트도 사고, 자가용도 굴리고, 골프도 치는 등 여러 가지 비리혐의가 드러나고 있으니 꼭 조치되어야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저는 신목사에 관한 한 김교수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발이니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과 이○○사건 등의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2000년 9월 24일(주일) 기독교실업인회에서 최창식장로를 15:30에 만나 잠시 이야기했습니다.

9월 정기당회시 석목사님이 신목사를 꼭 징계한다고 말하여 최장로에게 진의를 확인해보니 지난번에 롯데에서 이야기한 것 외에 변한 것이 없다고 대답해주었습니다.

그후에 최장로에게 전화하여, 2000년 10월 2일에 저의 장인 장모인 김열한 장로와 석남순권사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손복이, 손옥, 천정자, 박귀자, 김정희전도사 등이 여러 이야기 중 신장로가 교회에 뼈라를 뿌리고 신문기자를 만나고 인터넷에 목사님을 음해하여 큰 사고를 냈는데 권사님 아시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최장로에게 웃으면서 이런 일을 이야기하고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지시는 아니겠지만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과잉충성하는 분위기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단과 교회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2000년 10월 11일에 롯데월드 로비 라운지에서 오후 4시에 만나 2시간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최장로가 신목사의 근황과 인천노회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 현재 중진목사들과도 일체 교류가 없고 제가 전화도 하지 말라고 부탁했고, 인천노회에는 4월 노회 때와 9월 임시노회시 사건들이 있어 이번 노회에는 참석하지 말라고 권했다고 하고, 관교제일교회 성태봉강도사의 당회장을 맡고 있는 것을 신목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목사에게 돌리고, 비교적 할 일이 없는 사회농촌부로 돌리고(고시부 서기 등도 임의로 임원회에서 제외시킴), 신목사와 함께 있는 김규한목사에게 두명의 노회 목사들이 신목사는 왜 노회를 참석안했느냐고 물으면서 “잘리지 않고 있는 것도 다행이지”라고 비꼬는 분위기가 있었고 실제로 팔다리 다 자르고 목숨만 부지하게 한 상태로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의 노회장인 임재훈목사와는 세 살 차이로 앞으로 약 30년 가까이 같이 목회를 해야하는데 석목사가 약속했던 화합이나 식사자리 등은 없었고, 인천노회에 당회가 구성된 교회가 5개교회 뿐인데 그중 네곳만 위임목사로 청빙되고(신목사도 3년 전에 위임받음), 노회 서열로도 7번째인데 그간 노회에 기여(노회, 교역자회, 시찰회 등에서 서기 등을 감당)한 기여도나 기타 서열로 보아도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장로는 이어 저의 신변에 관한 이야기를 물으면서 “석목사의 설교에 은혜가 되느냐”고 물어 지난 2000년 10월 8일 낮과 밤설교에 정말 은혜 많이 받았다고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저의 신상에 관한 문제는 석목사님과 상의하고 장로님들과도 상의했느냐고 물으니 최장로는 “석목사님과 자신의 의견이고 다른 여러 장로들에게 뜻을 구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때 저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권징이 바로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석목사 개인의 교회는 아니다. 7인의 교단 중진목사 건의문에도 교주라는 표현까지 있고 이간질 시키는 문제도 명시되어 있는데 우려 경향교회에도 장로가 26명이나 되어 한번도 사적인 모임이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장로들이 사적인 모임을 갖지 못하는 것은 석목사님

이 A에게 이 말하고 B에게 저 말하는 등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로들이 모이면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로들이 석목사님의 일방적인 지시만 듣고 행하고 있지 않느냐고 항변했습니다.

지난 임시당회시 신목사건으로 세가지 문제를(교수, 신문기자, 인터넷과 강서로교회) 자세히 배경 설명하고 내가 혹시 몰라 10여 페이지에 달하는 해명성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지난번 강희석장로를 제명할 때 김장로가 당회비를 약 1년여동안 안낸 것을 문제삼아 폭언을 유도했고 사전에 방상복, 김상균장로에게 발언하라고 지시하는 등(골프시 대화 내용을 듣고 앞) 임시당회도 사전각본에 의한 것임을 알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장로님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변명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가 정식으로 이○○사건을 문제삼을 의도였다면 여러 장로들에게 문서를 우편으로 보내지 구두로 했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임시당회날도 먼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석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에 대하여는 “말씀을 정정해 주십시오” 하고 더 이상 이야기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최장로님의 서두발언에 “석목사님께서 대관령 넘어 강릉의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이○○사건이 아닌 약 12억원의 사채 문제를 발생시킨 정경효장로 사건으로 정정을 해주십시오라고 최장로에게 말했더니 최장로는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대답하면서 신장로도 알고 있는데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교회 건축재정에 큰 역할을 감당하는 김동진장로에게는 본 사건(이○○사건은 1-2년이 아닌 약 7년에 걸친 관계임을 본인이 실토함)에 대하여 시험받으면 큰일이다 싶어 자세히 이야기를 안하고 있다고 하고 제가 최장로님을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하는데(교회 일에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있고 모든 처신에 대하여) 이번일만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아무리 최장로님 어머니의 유혼이 있다고는 하나 권징을 바로 시행해야 개혁 보수주의의 총본산인 경향교회에서 간음죄를 범한 사람을 박수치고, 용서하고, 사의표명을 거둬들이고, 안견상정을 보류하고 끝내니 참 한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앞날이 걱

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고발한 저는 교회를 떠나라고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은 박수치고 용서하자고하니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최장로는 석목사님께 사과를 권유하지만 저는 석목사님이 강단 등에서 사탄마귀짓을 하고 있다고 유포하는 현실에서 도무지 사과는 곤란하겠고 여러 장로님들께는 시간이 허락되면 약 2분 정도 발언할 메시지도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장로님들이 석목사님의 범죄사실을 알아 시험들게한 것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할 수 있다는 답변이었을 뿐입니다.

금번 이○○사건은 석목사님이 간음죄를 범하다보니 필연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말과 이간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7계와 9계를 범한 것은 교회와 교단 때문에 이해하고 인내했지만 소위 6계(목사정직, 제명 등)를 범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석목사님은 총회 당일 아침 7시에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는 이야기라며 오늘로서 끝이니 제명이니 하는 말에 흥분했고(사실 그간도 수차에 걸쳐 신목사 치리는 불가함을 건의했음) 경향교회 장로들이 집을 담보해주고 교회빚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주니 인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파산자가 되고 알거지가 되는 줄을 누구보다도 석목사님이 잘 알고 교묘히 이용하는 것에 흥분했다고 했습니다. 석목사님은 중진목사들의 개혁건의안을 수용하지 못하고 교주 내지는 황제병이 도져서 속칭 배째라하는 식이기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7명의 장로들에게 고변한 내용으로 전체 장로에게 실토하는 것보다는 7명의 장로들만 모여 숙의하고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니 최장로는 그럴 수 없는 여건과 내용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여시동장로에게 교단개혁안과 신목사가 보낸 편지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최장로와 대화중 신장로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때 잘못된 것이 아니다. 협상은 양쪽이 다 지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석목사쪽에서는 사탄이니, 마귀시험이니 하고 중생 못받은 장로가 있다고 하는 등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팔순이 다된 장인 장모에게 5명

의 여전도사들이 한 행위등은 석목사가 덮어두고, 어떻게 제가 하는 처신만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여시동장로가 구일옥장로와 김영우장로에게 본 사건에 대하여 알려고 방문 면담하였는데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알리겠다고 하니 여장로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시험들기 때문에 보지 않겠다고 하면 보여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시동장로는 자신이 원해서 보여주었더니 말하기를 “내용이 너무 완벽하고 중요하니 자기 외에는 더 이상 다른 장로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일옥장로가 공평한 사람이니 구장로와 잘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여시동장로는 본인 자신이 신목사가 경향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신목사에게 개인적으로 큰 신세를 졌고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여시동장로와의 만남의 전부입니다.

이때 최장로는 저에게 “경향학원에 전화해서 여사장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맹세코 전화한 적이 없고 만약 문제를 삼으려고 했다면 확실한 증거물들이 있는데 우편으로 보내지 전화는 누구에게 하느냐”고 답변했습니다.

최장로는 설교에 은혜도 안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어떠냐고 저에게 말하여 저는 아직 떠날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20년 이상 장로로 봉사할 시간이 남아 있고 석목사님은 4년이 채 안남았는데 떠날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김동진장로는 건축실무위원 기도회시 “신장로가 추진하는 사업이 잘 안되어서 시험을 받아 그런다, 무릎꿇고 기도하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도, 저는 만약 김장로가 석목사의 7년이나 계속된 간음죄의 진실을 알고 시험을 받을까 봐 걱정하고 진실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김장로가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강희석장로를 제명하듯이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예” 하고 순식간에 처리하는 행동이 경향교회 당회에서 계속된다면 모든 장로들이 담보제공하고 보증을 서는 등의 교회일로 인해서 파산자가 나오고 알거지

가 되는 현실에 대하여는 나에게 원망해서는 안되고, 오래된 원로장로들이 충언 한마디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온 결과이니 원로장로들이 교회앞과 교인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최장로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교단헌법에 “장로의 직무는 교인들에게서 선정함을 받고 대표자가 되었으니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정을 관리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향 교회의 장로들이 헌법에 명시된 장로직에 충실하다고 보십니까? 장로들이 자기의 역할과 영역에서 충언하지 못하고 단순히 목사님은 하나님이 치리하신다라고 주장한다면 지금까지 김봉석, 강용만, 박길연, 김상민목사 등 수많은 교단의 목사와 선교사를 제명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치리하시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릴 일이지 어떻게 석목사님보다 죄목도 크지 않은데 이렇게 본인들이 원치않는 제명 등 강경책을 썼습니까?

제 아내는 아이의 학교가 결정되면 이사를 하고 나이 50에 외국으로 이민은 못가니 제주도로 이사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고통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피값주고 사신 교회가 석목사님 한분만 회개하고 개혁하면 모든 일이 바로 선다는 신앙 아래 하나님 앞에 목상하여 지혜를 얻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교회생활에 충실할 것을 마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사실 루터나 칼빈도 종교개혁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도망자요, 사형수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와 교회는 칼빈주의 신앙과 신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최장로님께 했습니다.

5. 결론

저는 교회 앞에 석목사님의 죄는 잘못되고 밋지만 그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장로님들이 본의 아니게 저를 통해 이 사실을 알고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때 저 자신도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석목사님이

다윗과 같이 사용받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내해 왔습니다. 사실 석목사님은 그동안 가족들을 통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딸이나 큰며느리의 일들 그리고 작은 아들의 사업실패 등이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의 중직인 정경효, 강병길장로 사건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했듯이 석목사님도 가시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죄를 심판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석목사님의 신앙양심에 호소를 드립니다. 무엇이 실행일치이며 언행일치입니까? 한 연약한 젊은 목회자가 석목사님의 죄를 알게 됨으로 당했던 고통을 아십니까? 또 높으신 석목사님의 죄를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목사님과 목사님 측근의 사람들을 통해 당했던 괴로움을 잊으셨습니까? 굴절되고 왜곡된 보고와 그것을 자료로한 판단으로 신목사를 음해하고 핍박하고 교단 내에 설 자리가 없도록 목사님은 만들어 갔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울타리가 되어 신목사로 하여금 증거를 가지고 있으나 사용치 못하도록 하고 그런 상태에서 신목사를 방출하면 안심이라는 목사님의 졸렬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목사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급기야는 신목사가 섬기는 초원교회의 교인들 까지도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측에서는 신목사가 사탄이니 마귀니 운운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는 목사가 아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으며 교인들은 물론 부모형제에게 고통스러운 짐이 되어 괴로워 하는 모습과 현실을 보고 저도 깊은 시험에 빠졌습니다 (신목사는 석목사 개인의 죄를 보아서는 벌써 공개심판을 선택하고 싶었지만 형이면서 장로인 제가 석목사님 편에 서서 온갖 폭행을 하고 있던 터라 공개심판을 택하면 결국 어머니가 쓰러질 것을 개인적으로 염려했고 나아가 공개심판시 교단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여 주저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여기까지 시험하셨다면 주님이 저를 경향 교회에 보내시고 장로로 임직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헌당과 교회의 부흥발전, 또 교회건축 못지않게 중요한 2대 당회장 청빙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석목사님에게 청원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가해자였고 피해자였습니까? 누가 강자였고 누가 약자였습니까? 이제부터는 얼마남지 않은 목사님의 공적 사역 기간 동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셔야 합니다. 여과장치가 없는 일방통행식의 말들을 전하여 이런 사태까지 오게 한 왜곡된 보고라인을 청산하시고 새롭게 새 출발 하십시오.

가장 좋은 길은 목사님이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현재의 위치를 사수하셔야 한다면 정말 이전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 시기 전에는 곤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월 일 신선철장로가 드립니다.

기 록 일 2013년 08월 20일

경향교회 김선희 권사 (교적번호 114754)

하나님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하게 하는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길 간구하며 부족한 여종은 원로목사 사모님과 직접 대화한 내용과 전화로 나눈 내용들을 서술합니다.

I. 사건시작

2011년 8월 16일(화요일로 기억합니다만 15일 월요일 일지도 모르며 이 날짜가 문제되면 추후 전화통화 내역서 첨부) 오전 10시경 원로목사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 모- “선희야 이제 우리 운동 못한다.”

본 인- “왜요 할머니?”

사 모- “고집사가 사고쳤다”

본 인- “전국여전도 돈 건들었지요 할머니?”

(평소에 먹고 죽으려 쥐약 사려해도 쥐약 살 돈 없다, 의료보험 낸적이 옛날이다... 떠들면서도 항상 수표로 골프 그린피를 계산하고, 웃구입이며 경락을 꾸준히 받는 등 씹씹이가 커서 7년동안 전국여전도 회계를 하며 공금을 건들었다고 직감했기에)

사 모- “아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와 같이 전국 오만대를 다닌게 드러났다”

본 인- (저는 사모님이 뭔가를 오해 하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사실은요 할머니 미국가고 안계시거나 할아버지 가끔 점심식사 시간때 홍순옥집사랑 저 그리고 고집사랑 불러내셔서 할아버지랑 밥먹은 적 몇 번 있습니다” 라고 말씀 드렸더니

사 모- “그건 나도 안다”시며 “그 정도가 아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기적으로 영종도, 인천대교 통과 한 것을 하이패스로 다 확인을 했다”

본 인- “할머니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물음에

사 모- “사진이 집으로 와서 알았다 우리교회 성도라는 남자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원로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하기에 사진을 보낸다며 자신이 인천대교를 지나는데 원로목사 차가 보여 - 어 B.M.W. 우리목사님 차 번호내며 관심을 갖고 보았는데 장시간 서 있길래 혹시 무슨일이 생긴건가며 염려되어 지켜봤더니 차 뒤에 여자랑 있어서 사진을 찍어 보내신다며 외부에 알려 지기전에 잘 해결하라” 했다 합니다.

사진 속 여자가 고○○ 권사(그 시점엔 집사) 였다시며 다음 주에 당장 우리들이 필드에 나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 알리지 않을 수 없다시며 홍순옥집사에게도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나니 양팔엔 소름이 돋고 너무 황당해 혼미했습니다.

근 오년을 네 가정이 함께 일 년에 두 번 삼박사일 해외 골프여행과 한 달 두 번씩 골프하며 곁에서 볼때 자신이 목사라는 위치를 실추시켜 가시면서까지 고○○집사를 대하시던 모습과 원로목사 사모님의 미국여행으로 나가계실 기간에 원로란 위치에서 해서는 안 될 고○○ 집사 가정의 개별심방과 그 남편 강병희 장로의 모친 팔순생신(여의도 홍보석)에 참석해 설교를 전해주시는 것등 교회 질서와 형평성서 벗어나신 행동, 여행중 할머니가 안 계신 차안에서 가이드에게 “여기 세 여자분들 이쁘지요? 그 중 고집사가 제일 이쁘지요?” 라는등 도무지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들을 기억해보다가 심각성을 느끼고 그날부터 주의 종을 섬긴다는 사역이라던 일로 이어져온 고○○권사 가정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II. 사건 진행

(직분생략 할머니와 사모님은 동일인)

1) 사건 시작 후 교회 예배 참석시 강병희 고○○ 부부의 모습을 지켜보며 살얼음판을 걷는, 힘든 교회생활중 교회에선 공개적으로 원로목사 생신 준비로 노래를 선곡하는등 준비중이었는데 미국으로 한 달간 다녀 온다는 것과 그 기간 동안 고○○을 교회에서 나가라고 할꺼다 라는 말씀의 할머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달간 고집사 부부의 모습은 아무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더 웃고 활발히 움직이기에 아마 할머니가 급히 미국으로 가시느라 고○○에게 전화를 못하셨고 또 미국에선 원로목사가 곁에 붙어 있음이거나 국제전화 통화방법을 모르셔서 고○○과 통화를 못하셨기에 고○○ 태도가 달라진게 없나보다며 지냈는데 한달이 가 귀국하셨습니다.

2) 사 모- “선희야 고집사 행동이 달라진것 없냐?” 시길래

본 인- “ 할머니 달라지긴요 더 열심히 입을 귀에 걸고 잘 다니는데요” 했더니
사 모- “그렇지? 그리 들었다 고○○ 그것이 내가 미국 가기 전에 전화해서 한 달간 시간을 줄테니 너도 자식과 가정이 있고 나도 가정이 있으니 우리가 가정은 지켜야 하지 않겠냐 너는 영악하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달안에 너 남편을 꼬셔서 교회를 나가라 했더니 그 전화 통화 끝나자마자 바로 여의도 사택으로 찾아와 현관앞에서 할머니가 오해하신거라며 문을 열어 달래 길래 너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겠다 해도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해라고 하기에 문은 열어주지 않았다 합니다 그래도 안가고 한참을 현관앞에 서 있길래 이년아 그리 서있다 니 영감 올 시간 됐으니 만나라” 했더니 그제서야 갔다고 합니다.

전 사모님 전화를 받고 놀랐습니다. 사모님과 그런 큰일을 치르고도 두분이

미국에 가 계신 한 달간 고○○ 태도는 아무 변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3) 며칠뒤 10월 세째주 청년부흥회 어간 여전도회 연합찬양대가 찬양대로 수종들기에 교회로 가려는데 원로목사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 셋 (고○○, 홍순옥, 본인 김선희) 할아버지 만나러 6시까지 선교사무실로 오라기에 갔더니 분명 셋을 불렀다고 했는데 고○○은 불참하고 홍순옥과 저만 참석했습니다.

홍집사와 저에게 “앉으라” 시더니 대뜸 “할머니 전화 받은 것 있냐?” 길래 거짓말로 “없다” 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있다고 하기엔 그 내용을 우리 입에 담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답 끝에 “그럼 너희들 태도가 왜 그러냐” 시는 겁니다.

저희가 “왜요?” 란 물음에 언성을 높이며 “이 못된것들 착하디 착한 이웃 고집사가 아주 악한 마귀 할머니에게 걸려들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조카 집으로 쫓겨나 다 죽어가는데 위로도 못해주는 나쁜것들” 이라는 겁니다.

우린 “모른다 다만 무슨일은 있는것 같다” 라고 했더니 “그럼 너들 태도가 왜 그래?” 하시길래 “교회내서 할아버지 생신 준비로 선교중창단은 노래 선곡 까지하며 공개적으로 준비중인데 급하게 취소하고 미국으로 가신걸 미루어 짐작했다” 라고 둘러댔더니 그때부터 시작이신 겁니다.

“너들도 할머니 아주 조심해라 할머니가 악질이다 밖에도 안나가고 집안에서 방만 뱅뱅돌고 있더니 치매기가왔고 예민해서 어린집사를 시기질투로 마귀처럼 잡아 먹는다 걸려들면 죽여 놓는다 요즘 집에 들어가면 독을 쓰고 있는 얼굴이 마귀처럼 무섭다” 하시며 “그 대표적인 희생자가 박미진(지금은 전도사)이다. 그 애가 지금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론 언젠가 원로목사 자신이 박미진 그 집사 아주 건방지고 버릇없어 어디에도 못쓰겠다 하신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황당했습니다.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무식한 여자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여자가 대학 나온 남자랑 살면 복에 겨워서 감사해야지. 얼마나 무식하면 아직 은행 출입도 못해 수표를 싫어한다 그리고 현금만 좋아 하는 악한 여자다” 라 하는데 듣는 홍순옥과 전 우울했습니다. 오십 평생을 사모로 곁에서 기도로 동역한 부인을 노 목사가 새파란 서리집사들 앞에서 저리 부인을 모독할 수 있다는게 슬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강병희에게도 말해 강병희 장로가 할머니 말 듣고 당신을 찾아와서 책상을 내리치며 “목사님도 잘못했는데 왜 우리 가정만 파탄나야 하나” 길래 자신입으로 “이 병신 새끼야 니가 니 마누라 말을 믿어야지 그 늙은 여자 말을 믿냐 의학적으로 내가 성관계가 되냐 병원을 같이 가서 확인을 하자” 고 했다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어진말은 “고○○집사랑 거기 있었던 것은 고집사가 전도한 친구가 가정문제로 가출을 한다며 당신에게 이럴땐 어떻게 하죠? 라고 상담전화가 왔는데 마침 자신이 교회에 있어서 내가 같이 가주마며 나갔는데 그곳에 가니 그 친구가 없어져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고 했습니다. 아마 인천대교 사진사건에 대한 말인가보다며 듣는척 했지만 저는 속으로 ‘교회에 조직이 있는데 어떻게 일개 서리집사가 지역 담당 교역자를 두고 직접 원로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하고 길을 나설수 있는가?’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들은 “장명화 권사 그거 아주 나쁘다 내가 있는 한 그 권사는 교회일 앞으로 못한다” “너희 둘은 찬양대에 설 자격도 없는 것들” 이라며 난리를 친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기도는 하시길래 예배가 끝난 후 홍순옥 집사랑 늦도록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공적인 자리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헛되이 부르기는 어렵기 때문인것과 수 년동안 함께하며 사적자리에서 보아온 사모님은 아들같은 우리 남편들에게도 꼭 공대를 하시고 항상 약속시간이며 모든 일 경우가 반듯 하

신 분이셨기 때문에 잠시 헛갈렸습니다.

이일은 그날 선교부 직원들이 들어가는 우리들을 지켜봤고 밖에서도 호통치는 소릴 들었을 겁니다. 또한 찬양대 석에 늦게 올라갔기에 누굴 통해선지는 모르지만 할머니에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다음날 바로 사모님의 전화가 왔습니다.

원로목사께 선교사무실로 불러가서 혼난거며 원로목사가 사모님을 치매기 환자라셨다며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학력과 은행출입 이야기는 너무나 아퍼서 차마 말씀 못드렸습니다.

사모님은 그 내용 다 알고 계신다며 날 그렇게 소문내 선교지에서 사모들이 우리할머니 치매 걸려 어찌냐며 울며 전화해와 이젠 내가 교회를 가기가 힘들다시며 성도들 앞에 환자로 소문난게 부끄럽다 하셨습니다.

전화내용은 늘 그렇듯이 원로목사와 고○○ 불륜내용이었습니다.

“실은 그전부터 심증은 있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지갑에 수표 이백 정도 넣고 나가시면 딱 네 시간 후 들어오시는데 수표는 온데간데없고 빈지갑으로 오고 하길래 여자가 있구나란 직감에 하나님 꾀게 해주세요 하던 기도가 어느 날 부터는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뀌 했다” 셧다.

“그 사진 앞에서도 날 그리 취급하길래 강병희 장로를 불러 당신 장로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 혼자서는 이문제를 해결을 못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합해 같이 해결하자” 고 하니 “네 알겠습니다” 했다 하셧다. 아마 그말 듣고 바로 원로목사를 찾아가 바닥을 내리치며 왜 우리 가정 만 파탄나야하느냐고 한것 같다.

그 사진을 준 사람이 난 혹여 외부사람이면 그 사진을 악용할까봐 사모님이 염려되어 여쭙 봤더니 꼭 공중전화로만 전할 하시는데 염창동의 오래된 등록교

인이라셔서 안심했다. 할머니 누군가 이 일을 강구원 목사 이현상 목사에게 편지를 보냈다고길래 우리교회 조직을 잘 아는 분인가봐요 어떻게 강구원 목사에게도 보냈을까요며 함께 궁금해 한적도 있다 했다. 또한 사택으로도 어떤 여자가 전화를 해서 원로목사와 젊은 여자가 호텔에서 나오는것을 봤다며 전화가 왔는데 한 날 원로목사가 받으니 당신 누구냐는 소리에 날 알생각도 찾을생각도 말라며 끊터라고 했다.

사진은 빼앗기고 사모님은 치매환자 정신에민환자로 낙인찍힌 억울함에 괴로와 했습니다.

며칠후 전화 통화론 “금요일 정도면 저것들이 빼도박도 못할 증거가 내 손에 들어온다” 시며 “저것들 이번엔 발뺌 못할 꺼다” 기에 전 원로목사와 고○○의 통화내용을 도청한거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원로목사가 11월 23일 즈음 러시아로 갔을때 수요 예배후 홍순옥집사랑 사모님댁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댁으로 찾아뵙고싶다 했더니 쾌히 승락하시기에 갔습니다.

그동안 쌓인 얘기들과 아픈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번째 증거인 사진을 빼앗기고 치매 정신병자로 몰아가는 악함에 먼 친척분의 도움으로 원로 목사님 차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애기와 제일 의심가는 날의 테이프를 빼서 봤는데 보다가 그만 더이상 볼수없는 충격에 쓰러졌다” 시며 우시는겁니다.

테이프 내용은 “고○○이 차에 타는 얼굴 모습이 찍히고 10~20분 동안은 한성이가 윤성이가 조잘 조잘 거리더니 갑자기 조용해 지더랍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더니 남녀 성관계시 내는 신음소리가 나더니 영인아 좋지 좋지 좋지

소리가 들리고 당신은 더는 도저히 들을 수 없었고 쓰러지셨다”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할머니 좋지 좋지 좋지 가 뭐예요?” 라 물었더니 “아이고 나도 몰라” 라고 했습니다.

혼자이신 사모님이 너무나 불쌍하셔서 “이일 할머니 말고 가족중엔 누가 아세요? “란 제 말에 이 일을 미국 거주하시는 따님에게 원통해서 전했더니” 아버지가 내가 그 일로 아팠는데 그러시면 안돼지며 같이 울고불고 하셨다며 응급실로 실려가 삼일 만에 퇴원해 병원비가 엄청 나왔다고 하셨으며 엄마 나랑 미국서 살자며 나오라 했다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감당이 어려워 막내 아드님이신 석기신 목사를 불러 원로목사 석기신 목사 사모님 이렇게 셋이 같이 들었다 했습니다. 들은 후 석원태 목사 답하길 그냥 심심해서 흉내 내봤다는 변명에 사모님은 세상에 흉내 낼 것이 없어 그런 걸 하겠냐며 석기신 목사님은 들은 후 아들과 아버지가 아니라 목사 대 목사로 권하니 이제부터는 제발 강단에 서지 말고 모든것을 다 내려 놓으라 했다 합니다.

도무지 해결기미도 없고 고○○은 더욱더 휘젓고 다닌다며 최창식 장로가 그전 신학교 여자 문제도 다 해결해 줬고 해 이번에도 최창식 장로를 찾았다 합니다.

“장로님 제가 너무나 아픕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했더니 눈물을 줄줄 흘리시며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원로목사가 최창식 장로를 불러 사모님과 정반대로 한 얘길 듣고서는 헛갈려서인지 석기신 목사를 찾아 왔길래 장로님께 “장로님 우리 아버지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라고 답했다. 미국 집으로 갈때면 “엄마에게 무슨일 생기면 아버지 책임이라” 고도 한 얘기등 새벽 3~4시까지 긴 얘길 했으며 잠도 못 주무시고 당일 날 석기성 장로님과 지방 가신다는 말 듣고 돌아왔으니 석기성 장로님은 아실겁니다.

그 후로 계속된 사모님의 탄식은 가슴 아프고 해 많이 울었습니다.

원로 사모님은 오로지 고○○이 원로목사와 자주 만나는 직분인 전국 여전도 회계와 특별선교회 회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바램이었는데 황당하게도 원로목사는 장로 부인들로 구성된 선교 중창단을 공적인 자리에서 덕이없고 교만하고 목에 힘을 주고 다녀서 해체 한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일은 공개적인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4) 증거를 자신들이 지니고서도 떳떳하게 없다고 주장하는 거짓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려는 격이 아닐까요

2012년 9월 즈음 원로목사 둘째 자부인 정희정 권사가 저희 카페로 오셔서 홍집사랑 이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자기들도 처음엔 못 믿고 우리 어머니 왜 저러시나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밤 사모님이 너희들도 내가 정신병자 인줄 아나시며 테입을 던져 주고 보라며 가셨다합니다. 그랬더니 석기성장로가 여자들은 빠지라 했고 당회장목사는 외부 손님이 오셔서 만나러 나가며 자긴 안듣겠다며 가시고 석기성장로와 석기신 목사가 들었는데 정희정 권사가 무슨 내용인냐 물었더니 아무 대답을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막내 따님이 미국에서 잠시 다니러 왔는데 정희정 권사에게 “언니 내가 미국으로 돌아갈때 아버지에게 편지 써놓고 갈꺼니까 혹시 아버지 언니에게 전화하면 대처할말 생각해둬” 라고도 하고 원로목사가 자부인 정희정권사가 그 내용을 알가봐 엄청 신경을 쓰는것 같다는 말도 했습니다.

Ⅲ. 부연으로 통화한 사실내용을 적자면

1) 어느시점 원로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 해결되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 되냐” 시며 거두절미하고 “용서해 달

라”고 하셨습니다. 이일로 임성오장로, 장영민장로와 고○○ 남편 강병희 장로를 선교실로 불러 사과와 해명을 하시기론 “할머니가 정신이 나갔다가 이제야 제 정신이 돌아와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노인이 직접 와서 사과’하긴 어렵잖아? 하며 당신이 이렇게 대신 하는거라며 용서해 달라” 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할머니께서 직접 임성오, 장영민장로에게 전할 하셔서 거의 절규에 가까운 음성으로 “장장로님 저 믿지요 저 안미쳤습니다 할아버지말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입니다라고 저는 거짓말 안합니다” 라 했습니다.

할머니의 반듯함을 알기에 “네 할머니 저흰 할머니 말 다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 답하는걸 들었습니다.

2) 고○○ 남편 강병희 장로에게 전화를 했더니 통화가 되어서 “장로님 장로님은 고집사를 믿고삽니까? 속고 삽니까?” 물었더니 답이 없길래 믿고 사시면 야 장로님이야 편하시겠지만 장로님 속고 사는 겁니다 내게 증거가 있습니다 했더니 증거를 달라길래 사진도 뺏고 날 미친 여자 정신병자로 몰았는데 내가 또 속을줄 압니까?

하지만 언젠가 우리 넷이 들을날이 올겁니다 고 하셨습니다.

3)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도 핸드폰을 뒤져보면 하루에 한번씩 꼭 고○○과 통화를 한게 찍혀있으며 “할머니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 서울가서 고집사에게 잘해주세요” 란 말로 속을 뒤집었다 합니다. 그리고 요즘 토요일에 나가면 꼭 네 시간 있다가 들어오는데 녹초가 되서 돌아온다는 것과 필리핀에서 사용한 국제통화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전화국에서 확인전화가 왔다 합니다.

그리 올분 토하시다 하시는 말씀은 내가 손톱만한 믿음에 있어서 안죽고 산다며 몇 번씩 한강에 나가 죽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4) 미국 다녀오셔서 원로목사가 고기를 사준다고 고기집을 갔더니 그 업소 주인이 원로목사를 알아보고서는 저번에는 어떤 젊은 여자와 두번 다녀갔다길래 머리스타일과 차를 물어봤더니 고○○이라 하시며 어떻게 그것을 데려 온 곳에 나를 또 데려가느냐며 아파했습니다.

5) 이 긴내용을 나열하다보니 결국은 불미스런일을 행한 당사자와 하늘 아버지지만 아실 것이고 증거 테입은 사모님 말씀으론 석기신 목사가 버린다한 소리가 있어 정말 없었냐고 물었더니 “아이구 어머니 그걸 왜 버립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관속에 넣어줄겁니다” 고 했다는 목사 아드님과 분명히 당회실서 두 아들이 들었다고 부인권사님이 증거한대로 장로이신 석기성장로 그리고 원로목사 내외가 신앙양심으로 양심선언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거룩하고 성결케 하려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아픔을 겪는 우리 모두를 위해 공의로우신 하늘 아버지께서 진실한 자의 편에 얼굴을 비취시며 진실한자의 손에 붙여주실줄 믿고 감사하며 기억나는 일부분을 옮겼습니다.
(당시자와 관계된 우리 모두의 핸드폰 통화 기록과 문자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사모님은 직접 고○○에게 많은 전화와 문자를 보내신걸로 말씀했습니다)

2013년 08월 20일

경향교회 김선희 권사(교적번호 114754)

딸 석OO씨가 아버지 석원태 목사에게 보낸 편지

아버지,

아버지께 그런 전화를 드리고 제 마음이 후련해지는지는 커녕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 육하미 소리치셨던 사자도됩니다. 아바도 아버지에게만이 아닌 이세상을 향한 저의 "본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때도 말로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야했는데 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죽음 때 까지 가차없이 배신의 상처가 있음을 아시지요. 제 전 남편은, 제게는 "제"였을겁니다. 이혼 때 "가"제 갈바람에 "원로"를 기속을 보고 몇 년째 한 말, "이제 교회에서 사해 좀 받으시라, 살만하니라 바람이요구만" 했을겁니다.

말 남으로 그 아이와 감성적이와 풍화한 내면, 아버지 안보셨지요? 제, 여전히 그 전과일찍 가져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게 어머니 몰아가시면, 아버지 원도만 전하셔도 (어머니 안 계신분만), 저인것에 대해서 보여 주실 수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 믿 믿합니다... 아바도 자신있게 아버지 원도만 내워서 전하셔도 좋지요... 아바도 자신있게 아버지 원도만 내워서 전하셔도 좋지요...

예남 고교원로와 인회와의 관계 그리고 이런 고교원로 집사와의 관계...

아버지는 제게 저의 전 남편과 같은 또 다른 자랑스러운 내 아바가 으쓱해지는 "제"였을겁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와 같은 또 다른 자랑스러운 내 아바가 으쓱해지는 "제"였을겁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와 같은 또 다른 자랑스러운 내 아바가 으쓱해지는 "제"였을겁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와 같은 또 다른 자랑스러운 내 아바가 으쓱해지는 "제"였을겁니다.

제가 바라지는, 말도듣지않습니다.

먼저, 평생, 매일 매일 편편히 어머니께 "살았었다,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다" 이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 아버지께 어머니와 살 제일이 있으시면 말입니다.

그리고 제 이 편지 받으신 후에는 어머니께 더 자주 전화하십시오. 어머니가 자주 전화하셔도 됩니다. 여기 시골로 밖에 제가 있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많이 아버지께 편지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자신이 어머니가 아바도 자기... 어머니 말하셔도 좋고 됩니다. 아버지께 어머니와 살 제일이 있으시면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보셨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전하셔다하시고 아버지 걱정하십시오. 아버지는 진실으로 어떻게 할까요? 제 기억으로 이혼 이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버지 바람은 제가 어머니와 함께 들어 시골로 보내진것이지요? 그것은, 아버지가 좀 어려서부터 고교원로 또 다시 만나고 (또한 제

말씀하셔도), 어머니도 너무나도 열심히 살고해서 하신 말씀 아시십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할까 사시는 것 같진 못 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두 분이 이혼하셔도, 아니면 두 분이 조율하 의한 곳에 가서 사시든지 양자 택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고교원 때부터 죽어도 사수해, 경향교회에 있기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사마의 말을 쓰시고는 그리도 원한스름을 주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위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셨지요? 사람들에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게요...

이혼 하시면, 제가 어머니와 살 것 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흔한 이런 생활 제가 이렇게 도울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버지 믿었습니까? 고교원 그 나쁜 사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전도 했다고 경향교회 주교로 사신 적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마의 말을 쓰시고는 그리도 원한스름을 주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위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셨지요? 사람들에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게요...

마음으로든 - 말이 안으로 들린다? 아버지가 해 할 마음 없다면 - 그 나쁜 인간, 고교원, 수 천만 원이 죽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였다면, 분명 어떤 형태로든 아버지와 살기 할것입니다. 그것은 장상적인 여자들의 생각이지요. 그러나 저의 어머니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정상이 아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마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 말은... 성경에도 간음한 연고로는 갈라사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머니와 사시든지 이혼 하셔도 좋습니다.

어머니 11월 말에 가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시지요. 아버지가 어머니께 진실로 사귀시고 어머니와 사시고 싶으실 때만 어머니가 거기 계시게 됩니다. 어머니께도 말할 말씀, 여기 떠나시기 전에 드릴 것입니다. 저의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 진실으로 회개하시고, 또 어머니 역시 이혼하셔도 좋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같이 남은 여성 다복하게 사시는 모습, 저에게도 보여달라고 말할 드릴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께 한 일들은-평생- 용서도 사랑받을 수 아득한 것 보다 더 약한하며, 태도로 비행기로 밀릴수록 한 것 보다 더욱 더욱 몇 몇 고교원 전하셔하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목사님도 말입니다.

그녀는,

저는 또한, 자식으로 아버지께 효도 한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살아주시고 신자로서 살아가게 하신 또 경제적으로 제가 이 때 까지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식으로 아버지께 걱정거리로 괴롭히고 송구한 마음 씁니다. 그 때문에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괴롭히고

원본 1

원본 2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후로는 제 경제적인 면 너무도 정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서 제 본수에 맞게 조절하고 살아갈 것 입니다. 제가 부처지는 본으로 어머니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어머니 하고싶고 갖고싶은 것 시 드리고 하셔도 됩니다. 그 정에서는 아버지께 너무 괴롭힘을 다시 말드립니다.

저는 제 삶을 찾아 살 것입니다.

이런게 어머니 몰아가시면, 두 분이 잘 이야기하시라, 진실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정해주십시오. 그렇, 만이, 무-양 어머니와 아버지께 죄의과사들에게 조금이라도 용서를 구하시는 일 일 것입니다. 그걸, 아버지께 어머니가 다정하게 진실으로 정정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 만이 계획들, 자식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지난 일들과 같이 아버지 이혼 제를 계속 다룬다 사지마십시오. 아버지께, 제 죄건으로, 매일 매일 어머니께 용서구하고 진실으로 매일 매일 회개하며 사시길,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면 그런 다들일어나지 않을텐데... 장상적으로 사정하고 사는 부부 같으면, 풀이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 좋아야 하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와 무엇을 같이하기 싫어하시니, 왜 그러신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게는 좀 시로가 행여 저지는 것이 좋겠지요.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눈이 있으나 어떻게 정신으로, 저처럼 이혼하셔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어머니께 드리고 보았스런다고 할-때고 싶은 하시면, 내가 가지게 하시지요. 더이상 괴롭힘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어머니를 진정으로 싫어하심을 저는 봅니다. 끝내요. 어머니도 이제는 지치셨고, 아버지와 똑같은 심정입니다. 저는 그걸 경우에 어머니와 살 것입니다.

선택은 아버지 당신에있습니다.

어느날 텔레비전에서 한 부부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화제로 불려 딸 한사람을 살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이 그러도 재판하고 불쌍히 여기는 불신자입니다. 그 불구자는 산원제대로 몸이 불구가 되었으니, 캄보디아에서 자게게로 시집온 한 여인과 딸 한사람을 놓고서 얼마나 진실되어 사랑하며 화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불구자는 평생 연인이 정부에서 나와 일 할 필요도 없었지만, 매일 매일 트럭을 몰고나가 쓰러지면, 재물을 주급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돕고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크리스천"이란 이유는 캄보디아에서 온 그의 아내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불구자에게 비록 "구원" 받았었지만, 저는 저런 살아야할로 진정한 사랑은 살, 비록 돈도 명예도 없지만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이라 부를것입니다. 예를 든것처럼 참탄에 서있는 목사, 또한 연직 장로부인, 부끄러움 구원을 받은 그를 보다 진정한 이 세상에서는 착하고 진실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상처를, 아버지 남은 평생 위해주시고, 끝없이 용서를 구하시고 정말 달라지시길 기도합니다. 비록 그 옛 날 아버지 어머니 그 순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던 시절로 돌아가실 수는 없지만 그 날들을 생각하며 두 분이 정말 진실한 "부부"로 남은 삶을 보내시길 수 있습니다. 그러해서, 그런 두 분 모습보며 저의 자식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2012, 2월

원본 3

원본 4

딸 석OO씨가 아버지 석원태 목사에게 보낸 편지

아버지,

아버지께 그런 전화를 드리고 제 마음이 후련해지기는 커녕 더욱 힘들어졌읍니다.

아버지, 욕하며 소리지른것 사과드립니다. 아마도 아버지에게만이 아닌 이세상을 향한 저의 “분노”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딸로서 그렇게까지 하지 말았어야했는데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게는 죽을때까지 가져갈 배신의 상처가 있음을 아시지요. 제 전 남편은 제게는 “세계” 었읍니다… 이혼

변호사가 제 전남편의 핸드폰 기록을 보고 첫 번째 한 말, “이제 교회에서 사례 줌 받으려니까, 살만하니까 바람피웠구만” 했읍니다.

밤 낮으로 그 아이와 금십이가 통화한 내역, 아버지 안보셨지요?

저, 여전히 그 전화내역 카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아버지 핸드폰 전화내역 (어머니 안 계신동안), 자신있게 떼어서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 안 믿읍니다… 아마도 자신있게 아버지 핸드폰 내역서 절대로 못 보여주시겠지요…

옛날 고려신학교 인희와의 관계 그리고 이번 고○○집사와의 관계…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죄송하지만 못 믿읍니다

아버지는 제게 저의 전 남편과 같은 또 다른 자랑스럽고 내 애께가 으쓱해지는 ‘세계’였읍니다. 이제 저는 제게 가장 소중한 두 “세계”를 똑같은 이유로 잃었읍니다. 상관 없읍니다.

제가 바라는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 매일 매일 한번씩 어머니께 “잘못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다” 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아버지가 어머니와 살 계획이 있으시면 말입니다.

그리고 제 이 편지 받으신 후에는 어머니께 더 자주 전화주십시오, 어머니가 자주 전화하지 말라고해도 말입니다. 여기 시간으로 낮에 제가 없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없어 아버지가 힘들고 외롭다고 해 주십시오, 아버지 자신이 여기가 아프니 저기가 아프니 말씀하시지 말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살 계획이 있으시면 말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보고싶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도 또 전화기다리시고 아버지 걱정하십니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어떻게십니까? 제 기억으로 이번 여름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아버지 바람은 제가 어머니와 좀더 많이 시간 보내길 원하셨지요? 그것은, 아버지가 좀 여러면에서 고○○도 또 다시 만나고 (모든게 잠잠해지면), 어머니도 너무너무 진심으로 싫고해서 하신 말씀 아니십니까? 우리자식들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떨어져 사시는 것 것 찬성 못 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두 분이 이혼하시든지, 아니면 두 분이 조용히 외딴 곳에 가서 사시든지 양자 택일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고○○ 때문에 죽어도 서울에, 경향교회에 있기 싫어하십니다. 경향초장에서 내쳐져야 할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고○○ 그 사악하기 그지없는 인간인데 참으로 기가막히기 그지 없습니다.

이혼 하시면, 제가 어머니와 살 것 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완벽한 이중 생활 제가 이렇게 도울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

게 아버지 믿겠습니까? 고○○ 그 나쁜 사람, 제가 한국 가 있을 때도 전도 했다고 경향교회 주보에 사진 찍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는 그리도 뻔뻔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셨지요? 사람들에게 아무일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요 ...

마음으로는 -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버지 해 할 마음 없지만- 그 나쁜인간, 고○○, 수 천번 찢어 죽였습니다.

제가 어머니였다면, 분명 어떤 형태로든 아버지와 살지 않을것입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여자들의 생각이지요. 그러나, 저의 어머니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 정상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면에서 아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제 말은....., 성경에도 간음한 연고로는 갈라서라 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어머니와 사시든지 이혼 하시든지 하십시오.

어머니 11월 말에 가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아버지가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죄하시고 어머니와 사시고 싶으실 때만 어머니가 거기 계실 것입니다. 어머니께도 같은 말씀, 여기 떠나시기 전에 드릴 것입니다. 저희 자식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또 어머니 역시 이혼못하시려거든, 아버지 용서하시고 같이 남은 여생 다복하게 사시는 모습, 저희에게 보여달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어머니께 한 일들은-평생- 총으로 사람을 쏘아죽인 것 보다 더 악랄하며, 테러로, 비행기로 빌딩을 폭파 한 것 보다 더욱 더욱 더욱 몇 억 갑절 잔인하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목사로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효도 한 것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삶을 주시고 신자로서 살아가게 하심 또 경제적으로 제게 이때까지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식으로서 아직까지 걱정끼쳐드려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그 면에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제 경제적인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제 분수에 맞게 조절하고 살아 갈 것 입니다. 제게 부치시는 돈으로 어머니와 함께 여행도 다니시고 어머니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 사 드리고 하셔야 합니다. 그 점에서는 아버지께 너무 죄송함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 삶을 찾아 살 것입니다.

이번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두분이 잘 이야기 하셔서, 진심으로 앞으로의 거취를 정해 주십시오. 그 길만이, 만약 어머니와 아버지가 저희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용서를 구하시는 길일 것입니다. 그길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정하게 진심으로 정직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길 만이 저희들, 자식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길 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지난 일년과 같이 아버지 어머니 제발 계속 다투며 사시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제 의견으로, 매일 매일 어머니께 용서구하시고 진심으로! 매일 매일 회개하시며 사시면,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면 그런 다툼 일어나지않을텐데요.... 정상적으로 사랑하고 사는 부부 같으면, 둘이 같이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 좋아야 하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와 무엇을 같이하기 싫어하시니 왜 그러신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번에는 좀 서로가 떨어져 계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눈이 있으니 어떻게 정식으로, 저처럼 이혼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제게 말씀하신대로 어머니 징그럽고 부담스럽고 꼴도 보기 싫고 하시면 데리고 사시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어머니를 진정으로 싫어하심을 저는 봅니다. 글썄요, 어머니도 이제는 지치셨고, 아버지와 똑같은 심정이십니다. 저는 그럴 경우에 어머니와 살 것입니다.

선택은 아버지 당신께 있습니다.

어느날 텔레비전에서 한 부부의 사연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화재로 한쪽 팔 한쪽 다리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이 그리도 재판하고 불쌍히 여기는 불신자입니다. 그불구자는 산업재해로 몸이 불구가 되었으나, 캄보디아에서 자기에게로 시집온 한 여인과 딸 하나를 놓고서 얼마나 진실되이 사랑하며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불구자는 평생 연금이 정부에서 나와 일 할 필요가 없었지만, 매일 매일 트럭을 몰고나가 쓰레기를, 폐품을 수집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그가 신청한 이유는 캄보디아에서 온 그의 아내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불구자에게 비록 예수 구원은 없었지만, 저는 저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삶, 비록 돈도 명예도 없지만 한점 부끄럼 없는 삶이라 부러웠습니다. 예수를 전도하는 침단에 서 있는 목사, 또한 현직 장로부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그들보다 진정 이 세상에서는 착하고 진실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상처를, 아버지 남은 평생 싸매어주시고,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시고 정말 달라지시길 기도합니다. 비록 그 옛 날 아버지 어머니 그 순수하고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던 시절로 돌아가실 수는 없지만 그 날들을 생각하며 두 분이 정말 진실한 “부부”로 남은 생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해서 그런 두 분 모습보며 저희 자식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2012, 시월

슬픔

지금 우리 경향교회에
경악할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교회 내에 불륜과 사치와 현금 도둑질에 대한
증거가 봇물 터지듯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교회와 교육기관 내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끔찍하고 부끄러운 범죄행위입니다.
동료 성도들이 받을 상처가 걱정스럽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둠의 편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회개도 치유도 회복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 불의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발족된
<경향교회 개혁집사회>에서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공개질의서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일에,

본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헌신한 모 장로를
부당하게 처리하여 내쫓으려 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떠나야 할 것은 교회를 위해 헌신한 성도와 장로가 아니라
불륜과 사치와 현금을 도둑질한 당사자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주 당회를 지켜봐 주십시오.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태 목사의 정체 2

물질의 노예, 배신의 목자
BMW 자동차를 벤츠로 바꿔
자기 범죄 가리려고 8억 5천 배임횡령

석원태 목사는 타락한 목자입니다.
고려신학교가 세계적인 신학교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아들은 외국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성도들이 장사하면서 대출을 받아가면서
심지어 자기 차를 팔아가면서 바친 헌금으로
자신은 안전을 핑계로 사치스런 벤츠 자동차를 샀습니다.
기존에 타던 BMW는 안전하지 않아서 불안했습니까?
목자가 하나님의 지켜줄을 믿어야지
BMW를 놔두고 벤츠를 또 사는 것으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까?
보다 충격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새 성전 완성과 교육관 헌관을 위해 전교인이 헌신하던 시기,
석원태 목사는 경향학원 박영철 교장과의 소송 과정 중에
1심에서 2억 5천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치부를 약점으로 잡혀 8억 5천만원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목사의 몸으로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며
그 입막음을 위해 감히 하나님의 헌금을 유용하다니요.
석원태 목사와 당회장은 실질적인 경향교회의 소유법인인
경향학원의 이사장 자리를 옮겨주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사유재산 삼아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 경향교회는 정의의 강물이 막혀 있습니다.
거짓과 슬픔으로 회칠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애고 싶어하는
주일 1시 청지기 기도회에 모여 기도합시다!
경향의 어진 성도들이 모두 모여 기도와 합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강물같은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합시다!

호소문2

친애하는 경향교회 당회원 여러분!

저는 김동진장로입니다. 두 번째 호소문을 올립니다. 지금 우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라 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의 악을 단죄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바로 세울 것이냐? 참으로 중요한 선택의 길에 서 있습니다.

저는 감히 석원태목사를 거짓 선지자라고 선언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를 알찌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지금까지 밝혀진 것 만으로도 그는 30년 이상 불륜을 일삼아 왔습니다. 7년 동안 처녀를 농락했으며, 장로부인들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장로 남편들을 입막음 하기 위해 돈을 뿌려 왔습니다. 목사가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요?

이것이 석원태목사의 숨겨온 모습입니다.

그의 40년 목회의 열매는 큰 예배당이 아니라, 음란과 폐역을 일 삼았던 악한 열매들입니다. 이 모든 사실의 증거들은 석원태목사의 사모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가 지난 6월 당회에서 발언한 이후 저에게 날라온 수많은 정보들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목사가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어 저에게 성령으로 역사 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동안 말없이 충성해온 저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친애하는 당회원 여러분!

우리 신자에겐 신앙양심이 있습니다. 저는 금번 원로목사 건을 처리하는 석기현 당회장 목사의 태도를 보며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본 석원태목사의 불륜사건은 처음에는 가정문제였지만 이렇게 큰 문제로 발전한 것은 석원태목사 사모가 많은 권사, 장로들에게 애타는 호소를 했기 때문에 알려진 사건입니다. 석원

태목사와 고○○ 권사의 카-섹스 녹음도 사모가 사람을 시켜 녹음했습니다. 녹음자료의 보관도 석기신 목사라고 사모가 말했습니다. 당회장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껏 처리할 수 있는 모든 증거가 그의 가족들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무책임한 말입니다.

이 문제의 처리방향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경향교회가 음란과 불륜의 뿌리를 자르고 바로 서느냐? 아니냐?입니다. 우리 당회는 몇 번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2000년 9월 신학교 이모 여직원에게 대한 7년간의 성폭행 사건을 한번의 실수였다는 석원태목사의 속임수에 박수치고 용서했습니다.

당회록에 진상의 기록도 없이 말입니다. 이번에도 적당히 넘기면 절대 안될 일입니다.

원로목사는 우리교회와 교단의 뿌리입니다. 그가 지난 40년 동안 우리의 영혼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습니까? 석원태목사는 교회의 질서와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고 농락하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친애하는 당 회원 여러분! 우리모두 정신을 차립시다. 이번에도 석원태목사의 위협과 간교한 계략에 넘어간다면 우리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몸을 던져 이를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후손 대대로 이 악이 이어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생애 최고의 헌금을 바쳐 건축한 이 아름다운 성전도 불륜의 온상으로 전락되고 말 것입니다.

친애하는 당 회원 여러분!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성결과 거룩으로 바로 세웁시다. 정신을 바로 차립시다. 결단하고 실행합시다.

김동진장로 (2013년 8월 25일 당회에서 발표)